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を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調查研究 - 軍事

北韓軍事力分析과

우리의 對備策

—軍事戰略 및 戰爭潛在力을 中心으로—



研究執筆責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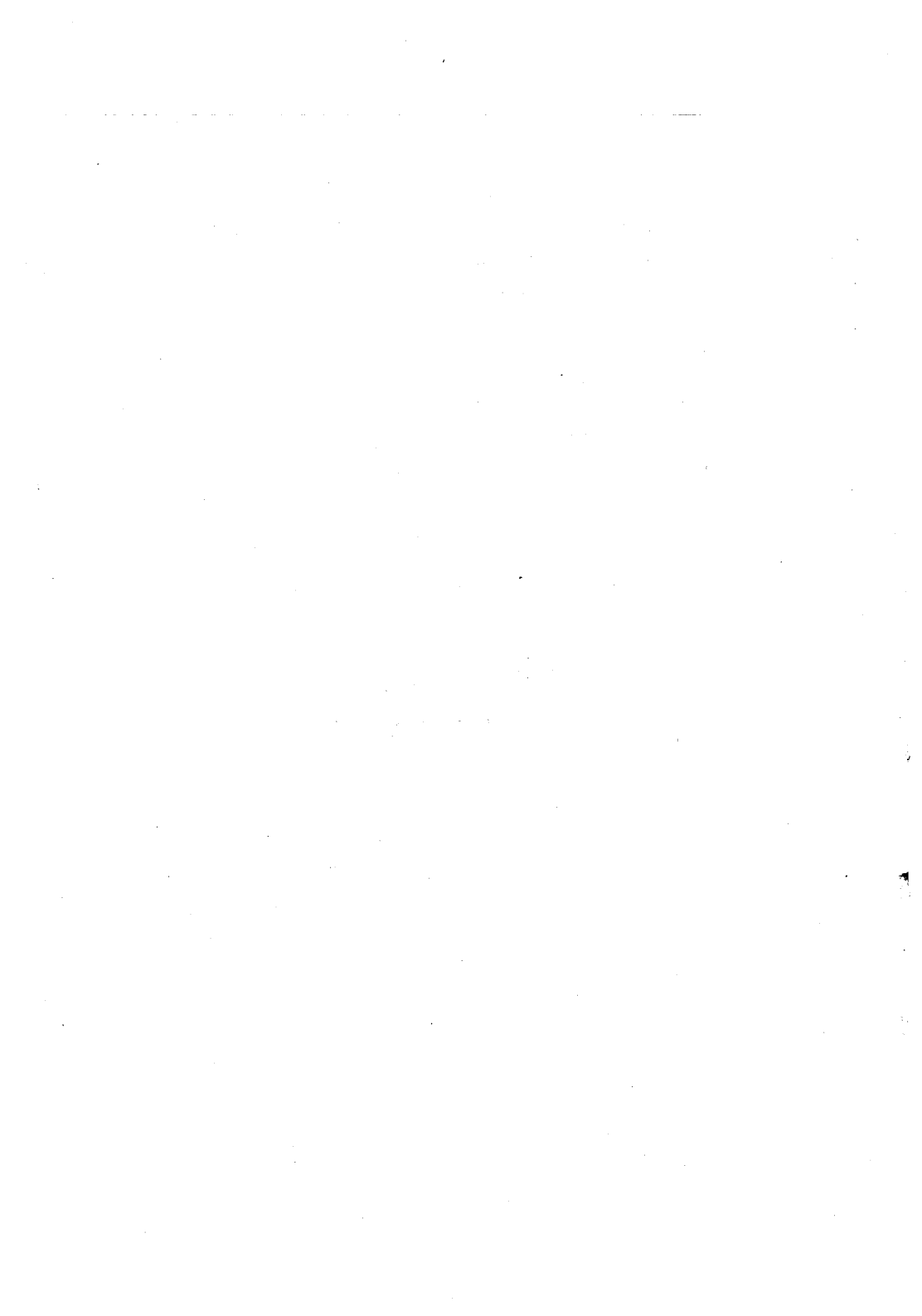
병 주

略歴) 陸軍士官學校卒業

國際問題研究所 研究員

刊行責任 金 諄 教 (調查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 序 論	3
가 . 国家政策斗 戰略	3
(1) 国家政策	3
(2) 戰 略	5
2 . 北韓의 軍事戰略	8
가 . 理論的 背景	8
(1) 「마르크스·레닌의 革命理論	8
(2) 蘇聯의 軍事戰略	10
(3) 毛沢東의 遊擊戰 理論	14
나 . 金日成의 軍事戰略	22
3 . 北韓의 軍事力 分析	29
가 . 序 論	29
(1) 軍事力의 意義	29
(2) 軍事力의 構成要素	30
나 . 北韓의 現存軍事力 (省略 : 別途報告)	30
(1) 北韓의 軍事制度	34
(2) 地上軍	33
(3) 海 軍	36
(4) 空 軍	37

다 . 北韓의 戰爭潛在力	39
(1) 戰爭潛在力의 意義	39
(2) 北韓의 戰意	39
(3) 北韓의 經濟的 能力	45
(가) 北韓의 人的資源	45
(나) 北韓의 物的資源	48
(4) 北韓의 行政能力	49
4 . 우리 의 對備策	66
가 . 戰爭勝敗의 要因	66
나 . 精神戰力 強化方案	69
다 . 經濟戰力 強化方案	72
라 . 政治戰力 強化方案	74
마 . 軍事戰力 強化方案	75

I . 序 論

가. 國家政策과 戰略

1) 國家政策

「대비드·이스톤」(David Easton)은 國家政策을 國民의 要求의 凝結이라고 했으며 「라스웰」(H.D.Lasswell)은 國家政策을 國家活動의 合理的 動機를 實踐하기 위한 方便의 包括的 表現이라고 했다. 通常적으로 國家政策을 樹立하는데 國家目標은 그 方向과 路線을 提示하는 基準이 되었고 國家目標과 國家政策의 關係는 國家目標을 目的이라 한다면 國家政策은 그 手段의 立場에 서게 되었다.

E.Hertz의 持論에 依하면 民族的 熱望은 다음 4個要素로 構成되어 있다고 한다.

- ① 民族統一
- ② 民族的 自由 (獨立)
- ③ 民族的 個性 (")
- ④ 民族的 威信

이와같은 民族的 熱望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 ① 國家的 繁榮
- ② 國家 安全保障
- ③ 國威

이 3個要素는 國家利益의 主要構成要素가 되고 있으며 이 3個

要素는 別個의 存在가 아니라 相互補完關係에 있다.

또한 國家利益은 國家의 對內外活動의 動機의 問題임에 반하여 國家目標은 國家利益의 必要性에 의하여 對內外活動의 方向을 提示한다. 이와같은 國家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國家가 取하는 對內外的인 活動이 國家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H.D.Lasswell은 國家政策을 軍事政策, 外交政策, 經濟政策 및 「이데올로기」政策으로 分類하고 있다.

英國의 軍事戰略家 B.H.Liddel Hart는 國家政策과 大戰略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大戰略(國家戰略)은 國家政策과 同意語이면서 戰爭遂行의 指標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軍事力은 大戰略의 한 部分的인 道具에 不過한 것이므로 敵의 抵抗意志를 弱화시키기 爲하여 大戰略에서는 政治, 經濟, 外交, 通信, 國際倫理 等 諸要素를 計量, 適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軍事戰略의 限界는 戰爭에 局限되지만 大戰略은 戰爭後에 오는 平和에도 關聯을 가지며 國家의 諸手段을 結合시켜 그것의 使用으로 將次の 平和狀態를 해치는 것을 防止하고 國家의 安保와 繁榮을 가져오도록 國力の 諸要素를 調整한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一聯의 主張은 國家利益을 反映하는 國家目標의 達成手段으로서의 國家政策을 遂行, 成功시키기 爲하여 諸 國家에서는 大戰略을 驅使하여 軍事力을 하나의 道具로 使用하는 바, 大戰略은 戰略뿐만 아니라 平和에도 關聯을 가지며 그 窮極의 目的은 國家의 安保와 國民의 繁榮이라는 것을 明白히 說明하고 있다.

2) 戰 略

가) 戰略의 意義

戰略은 Encyclopaedia Britannica 에 의하면 現在의 戰爭樣相을 支配하는 技術과 보다 넓은 局面의 戰爭을 遂行하는 經綸이다 라고 하였고 美軍事用語辭典에 의하면 戰平時를 莫論하고 必要한 政治力, 經濟力, 心理力, 軍事力을 利用하고 開發하는 技術과 科學이다 라고 했다.

戰略이란 用語의 語源은 Greece 말의 Strategos에서 由來된 것으로서 그 意味는 指揮者의 技術에 該當되는 것이다.

19世紀初 Napoleon 戰爭에 이르러서는 戰略은 會戰을 主管하는 技術이고 戰術은 戰鬪를 主管하는 技術로 区分되었으나 第2次世界大戰 以後에는 戰略이 戰爭行爲에 限定되지 않고 外交 (diplomacy)와 마찬가지로 對外政治行爲의 하나로 되었다.

특히 共產主義者들이 戰爭을 政治의 他手段에 依한 繼續으로 看做하게 됨에 따라 이와같은 時代的 特徵이 軍事行動과 外交行動의 区分을 애매하게 만들었고 對外政策의 失敗로서 戰爭을 하는 것이 아니라 對外政策의 한 手段으로 戰爭을 하게 되었으며 軍事政策은 平時에 戰爭準備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外交의 實効를 거둘 수 있도록 軍備增強을 하게 되었다.

나) 戰略의 類型

戰爭史上 存在하여 온 重要한 戰略 및 現代의 主要한 戰略으로는

①. 殲滅戰 戰略 (全滅戰略)

※ ②. 磨滅戰 戰略 (消耗戰略)

③. 抑制戰略

等으로 分類하여 볼 수 있으나 磨滅戰 戰略 또는 消耗戰略은 18世紀 制限戰爭을 할 때 使用한 戰略으로 殲滅的인 戰鬥을 通하여 敵의 意志를 꺾는 것이 아니라 敵의 兵站線이나 基地를 攻擊함으로써 敵의 抵抗意志를 꺾고 戰爭目的을 達成하였다.

이 戰略에서는 戰鬥이 戰略의 唯一한 目標이 될 수 없고 戰鬥은 어디까지나 戰爭의 目的을 達成하는 諸手段中의 하나에 不過하고 戰鬥과 機動을 兩立시키고 있다.

殲滅的 戰略은 敵의 主力을 野戰에서 戰鬥을 通하여 擊破시킴으로 敵의 意志를 屈服시키는 것으로 이때의 戰略概念은 絶對戰鬥의 概念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戰史上으로 보면 殲滅戰 戰略家로서는 「알렉산더」大王, 「시저」, 「나폴레옹」等을 들 수 있고 消耗戰 戰略家로서 「베리사리우스」 「구스타브스·아돌프스」, 「후레드릭」大王 等을 들 수 있다.

「抑制戰略」은 核武器의 出現으로 核交착狀態에 處하게 된 現代的인 意味에서 核戰爭은 勝과 敗가 區別될 수 없는 破局的 狀況에 處하게된 속에서 從來의 戰略概念인 勝利의 追求 보다도 戰爭의 抑制라는 目的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即, 軍事力을 勢力均衡의 手段으로 使用하되 그 軍事力을 使用하기보다 使用하겠다는 威脅을 通하여 또는 優位를 通하여 敵의 攻擊意志를 抑制시킨다.

다) 軍事戰略

美軍事用語辭典에 依하면 軍事戰略은 「軍事力の 威脅에 對處하여 軍事力を 適用함으로써 國家政策의 目的을 保全키 爲하여 國家의 軍隊를 使用하는 技術과 科學」이라고 하였다.

Liddell Hart는 軍事戰略은 軍事政策의 諸目的을 達成하고 大戰略을 支援하도록 計劃된 軍事力の 行動指針으로서 戰爭前에 敵을 屈服케 하거나 戰爭에서 勝利를 期할 수 있도록 軍事的 諸手段을 分配, 適用하는 技術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軍事戰略은 大戰略의 한 構成要素이며 이는 國家目標에 依하여 또는 政治目的에 依하여 支配되며 決定되는 것이다. 어느 國家를 莫論하고 戰爭은 그自體가 目的이라기 보다 國家政策 遂行의 手段이므로, 軍事戰略은 軍事政策에 依하여 制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北韓의 軍事戰略

가. 理論的 背景

北韓 軍事戰略의 理論的 背景을 形成하는 것은

- ① 「마르크스·레닌」의 革命理論
- ※ ② 蘇聯의 軍事戰略
- ③ 毛沢東의 遊擊戰理論으로 区分, 考察할 수 있다.

1) 「마르크스·레닌」의 革命理論

「마르크스·레닌」의 革命理論이란 「마르크스·엥겔스」의 社会革命理論과 「레닌」의 「볼셰비크」 革命理論을 綜合, 体系化한 것으로 「마르크스·엥겔스」의 社会主義理論이 19世紀 初期 産業革命段階에서의 各 先進国内에서 不可避하게 過度期的으로 爆發한 諸般社会問題를 圍繞하고 提起된 것이라면, 「레닌」의 「볼셰비크」 革命理論은 20世初를 前後한 帝政러시아」의 封建的이고 破局的인 政治, 軍事 및 經濟狀況속에서 創案, 適用되었던 革命理論이었다.

「마르크스·엥겔스」의 史的 唯物論에 依하면 社会主義革命은 資本主義体制内에서 스스로 發展하는 物質的 生産力과 既存生産關係와의 矛盾에 依한 歷史發展의 必然的 過程으로서 生産力の 發展과 더불어 資本은 少数「부르조아」에게 集中, 人口의 大多數인 「프롤레타리아」大衆의 反抗도 増大, 이들의 階級意識의 작성, 團結, 組織化로 結局 아래로 부터의 革命을 達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予言과는 달리 産業革命期の 爆發的인 現象을 克服한 先進諸國은 「프롤레타리아」의 括目할만한 生活水準의 向上으로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은 暴力革命 代身の 生活水準의 促進과 向上을 爲한 經濟問題에 보다 많은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이다.

「레닌」의 「볼셰비크」革命論은 帝政「러시아」의 政治的 無能과 腐敗, 經濟的인 後進性 및 第1次世界大戰에서의 軍事的 敗北속에 惹起된 帝國「러시아」의 沒落過程 및 無政府狀態에서 共產主義思想으로 武裝된 一團의 過激派 「볼셰비크」들이 武裝暴力으로 政權을 奪取하게된 革命理論으로 評價될수 있는 바 「레닌」의 帝國主義論에 依하면 19世紀末부터 西歐 資本主義는 自由競爭代身に 独占 形態로 植民地爭奪과 世界分割을 爲한 帝國主義段階로 들어 갔으며 그 結果 帝國主義段階에 들어선 先進資本主義國의 「프롤레타리아」階級은 植民地 搾取를 通하여 얻은 超過利潤의 一部를 받아들고 배가 불러서 革命意識을 喪失하게 되었다고 診斷하면서 社會主義革命은 先進諸國보다 後進資本主義國側에서 일으켜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의 革命理論은 「아래로 부터의 社會主義革命」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政治革命 (political Revolution)」이었다. 少數의 訓練된 職業革命家의 集團으로서 鉄血의 規律을 가진 戰鬪的 黨團이 大衆을 指導하여 革命을 遂行할 수 있으며 共產黨은 革命軍의 將校와 下士官의 集團인 閉鎖式 政黨으로 黨이 直接 武裝部隊을 掌握해야 한다는 것이다. 共產黨의 組織, 機會捕捉, 武裝暴動, 勞農同盟의 結成, 모든 過程에서 戰術의 融通性과 適応性 등은 「레닌」

의 革命理論의 核心을 이루고 있다. 이상의 「마르크스·레닌」 共產革命理論은 金日成의 對南赤化戰略에 基礎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政治, 軍事理論의 論理的 根柢를 形成하고 있어 그 重要性을 看過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蘇聯의 軍事戰略

蘇聯의 軍事戰略이 北韓의 軍事戰略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가 研究하여 보면 興味로운 事實을 많이 發見할 수 있다.

1948年 2月6日 北韓軍 創建自體가 蘇聯軍의 軍事要員에 依하여 計劃, 操縱되었고 6.25戰爭을 爲한 軍備增強 또한 蘇聯軍에 依하여 이루어졌으며 그當時 支給받은 武器 및 裝備 모두가 蘇聯便이 使用하던 것이었음을 勘案할 때 北韓軍의 編成, 組織, 訓練, 作戰 및 補給體系가 모두 蘇聯式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現代的 意味의 蘇聯軍事 理論을 支配한 兩大 潮流는 「크라우제비츠」(Clausewitz)의 軍事理論과 「마르크스·레닌」의 革命理論이었음을 看過할 수 없다.

「레닌」은 「크라우제비츠」의 軍事理論으로부터 戰爭은 全體의 一部이며 그全體란 政治이다. 戰爭은 가장 軍事的인 것으로 보일 때 가장 政治的인 것이다.

戰爭은 政治的 交渉과 分離될 수 없다. 어떠한 方法으로든 지 이것을 分離한다면 여러關係의 줄이 끊어져 저기에는 對象을 갖지 않는 無意味한 것만 남게 된다는 理論을 導出하였고 「마르크스·엥겔스」理論으로 부터 「國際關係는 階級鬭爭을 反映한다」

는 理論을 導出, 上記 軍事理論이 蘇聯의 戰爭理論의 基礎를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스탈린」은 「레닌」의 戰爭理論을 實踐하면서 보다 現實的이고 「러시아」特有的 理論으로 發展시켰다고 볼 수 있다.

「스탈린」은 「戰爭이 다만 他的 手段으로서의 政治의 延長이라 한다면, 平和 또한 他的 手段으로서의 鬪爭의 延長에 不過하다」고 하면서, 「레닌」政權의 軍事委員이었던 「트로츠키」(Trotsky)를 1924年 肅清하고 以後 히틀러 (Hitler)의 侵略이 開始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原則에 立脚하여 赤軍 (Red Army)을 增強시켰다.

첫째, 軍隊內에서 共產主義理念에 立脚한 政治思想教育의 強化 둘째, 軍隊內에서의 政治委員의 活動을 強化, 「스탈린」主義의 要塞의 役割 担当

셋째, 優先적으로 軍需工業의 擴大強化 및 全人民 軍事訓練體制 確立

넷째, 獨逸軍의 參謀制度 및 戰術敎理 研究

등을 貫徹시켜, 赤軍의 戰鬪能力의 向上을 기하였다. 이중에서 全人民의 軍事訓練體制 確立 面을 代表的으로 考察해 보면 1927年 「國防促進·航空·化學發展協會」(OSOAVIAKHIM)이란 類似軍事團體를 만들어 總力戰에 對備한 人民들의 國防訓練을 担当시켰는 바, 同協會加入者는 1939年까지 1,200萬名에 達했고, 이곳에서 實施한 軍事訓練으로서 「防空訓練, 運轉敎育, 落下傘 訓練, 機銃射手 訓練, 狙擊手 訓練 및 通信 訓練」 등이 包含되었던 事實을 볼 때, 最近

金日成의 全人民 軍事要員化政策의 始發이 「스탈린」의 1930年代의 軍事政策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탈린」은 1942年 2月 一般 命令 55号로서 地上軍 第一主義를 提唱하면서 戰爭勝敗의 恒久的 要因과 一時的 要因을 規定하였는데 前者로서 ① 後方の 安定, ② 士氣 ③ 師團의 質과 量 ④ 軍의 裝備 ⑤ 指揮官의 組織力 등을 들고 있다.

後者로서는 ① 地形 ② 氣候 ③ 奇襲 등을 提示했다. 이것은 所謂, 「스탈린」 軍事科學理論으로 「스탈린」의 死後까지 蘇聯의 軍事理論으로서 神聖視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興味로운 것은 金日成이 1952年 2月 4日 北傀軍主要指揮官會議 席上에서 「戰爭勝利의 5大 要因으로서의 教本」의 內容이 「스탈린」의 軍事科學理論의 恒久的 要因이었음을 볼 때 6.25 戰爭時 北韓의 軍事理論은 獨自의으로는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며, 蘇聯의 軍事理論을 模倣, 使用하였음을 再次 確認할 수 있다.

金日成은 當時 「戰勝의 5大 要因」으로서,

- ① 堅固한 後方
- ② 軍隊의 道德의 品性
- ③ 師團의 質과 量
- ④ 軍隊의 武裝
- ⑤ 指揮官의 能力 등을 들고 있다.

여와같이 蘇聯의 軍事理論은 政治와 軍事를 一致시키고 있으며 初創期의 戰略은 「스베친」(Svechin)의 焦土化戰術에 立脚한 磨

滅戰 (warfare of attrition) 戰略으로 부터 「투카체브스키」 (Tukhachevsky) 의 殘滅戰 戰略으로 變遷되었다. 이것은 1942年 「스탈린」 軍事科學理論으로 變遷되었다.

「스탈린」 死後 現在까지의 軍事戰略을 要約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55年 3月 24 赤星紙에 發表한 蘇聯의 著名한 軍事戰略家 「로도미스트로프」 元帥는 「소비에트 軍事學의 諸問題의 創造的 研究를 위하여」 라는 論文에서 「스탈린」 戰略을 批判하면서 다음과 같은 軍事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① 奇襲戰의 重要性을 核時代에서 再強調하면서 이는 戰勝獲得의 決定的 要因이라고 主張, 「스탈린」이 奇襲의 效果를 一時的 要因으로 過少評價한 點에 批判을 加했다.

② 西歐軍事學의 研究를 主張하고 그들의 軍事理論의 根本原則, 戰鬪遂行方法, 軍隊의 編成 및 運用의 原則을 研究할 必要가 있다고 力說하였다.

③ 過去戰爭에서 獨逸軍敗戰原因을 西歐軍事學者들은 蘇聯의 廣大한 國土에 있다고 하는 主張에 承服할 수 없으나 蘇聯의 勝因은 蘇聯軍이 國土를 適切히 活用한데 있다는 것은 事實이다. 앞으로 原水爆時代를 맞이하여 蘇聯의 廣濶한 國土利用을 보다 發展시켜야 한다고 主張했다.

④ 蘇聯特有的 精神的 要因을 發展시켜야 하는바 現代戰에서 精神的 役割이 增大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上記理論은 이제까지 神聖視되어 오던 「스탈린」의 軍事理論을 最初로 批判하고 있다는 데 그 意義가 있으며 그以後 1956年부터 1961年까지 蘇聯의 軍事理論은 混亂期로 보인다. 「주코프」 國防相은 「核로켓트武器가 從來의 陸·海·空 軍事力의 決定的 意義를 輕減시키지 않는다」라고 力說하고 있으며 「후르시초프」 首相은 「一國의 國防力은 軍隊의 외투만으로 決定되는 것은 아니고 重要한 것은 核武器와 그 運搬手段이라고」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主張은 1962年 5月 「마리노프스키」 國防相이 論文을 通하여 「核·로켓트軍과 從來의 市民軍의 役割을 同時에 強調」하였다.

最近에는 이와같은 理論에 立脚한 核·로켓트軍의 繼統的인 發展과 이에 못지 않는 通常軍備를 重視하는 兩面 政策과 柔軟對應戰略(Flexible Response Strategy)을 採用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브레즈네프」 政權의 「자하로프」 元帥는 그의 「軍의 指導를 科學的으로」라는 論文에서,

- ① 各軍種 및 兵種의 價值判斷은 모두 科學的 根拠에 依하여 決定해야 한다.
- ② 軍事學的 研究의 自由化
- ③ 戰史上的 評價는 当事者가 그後에 받는 地位에 依하여 左右되지 말아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最近 蘇聯軍事理論의 活潑한 研究進展의 一端을 보여주고 있다.

3) 毛沢東의 遊擊戰 理論

1971年 2月 8日 北韓軍 創建 23周年 記念 演說에서 當

時 北韓의 民保副相 兼 總政治局長인 韓益洙는 「金日成의 戰略, 戰術은 現代戰과 革命戰爭의 合理的 結合 運營」이라고 宣言하고 있다. 또한 그 戰術으로써 「集中과 分散, 積極防禦와 敵背後 攪亂의 配合, 大小部隊活動의 結合, 正規戰과 遊擊戰의 配合, 即時的 反攻擊戰과 連續的 打撃戰, 敵背後의 第2前線編成 襲擊前 狙擊手 및 遊動砲 活用, 飛行機, 탱크사냥 運動 等」이라고 陳述하고 있다.

이것은 最近 金日成이 對南赤化 武力革命戰略은 6.25戰爭과 같은 正規戰이나, 지난 1968年 1月 21日 서울侵略과 같은 種類的 非正規戰으로는 不可能하며, 따라서 蘇聯의 軍事戰略에 立脚한 現代戰에 併行하여 毛沢東의 遊擊戰 理論에 立脚한 非正規戰을 合理的으로 結合 使用하겠다는 企圖로 分析되고 있다.

毛沢東選集 第一卷과 第二卷에 包含되어있는 毛沢東의 軍事關係論文은 毛沢東이 1927年부터 20余年間에 걸친 게릴라戰의 體驗을 通하여 體系化시킨 革命戰爭 理論이다. 其中에서도 代表的인 遊擊戰 理論을 考察하면 그의 革命戰爭理論의 大部分을 把握할 수 있다.

毛沢東의 遊擊戰理論은 「農村으로부터 都市의 包圍」戰略과 「持久戰」戰略에 土台를 두고 있다. 이 두 戰略은 모두다 敵이 強大하고 이와는 反對로 革命軍이 弱하고 또한 革命戰爭의 舞台가 後進國이라는 理論的 基礎를 두고 있다. 強力한 敵을 避하여 敵의 힘이 比較的 미치지 못하는 農村地域을 中心으로 長期戰을 展開하면서 蓄力하여 드디어는 敵의 根拠地인 都市로 包圍攻擊해 들어감

으로써 勝利를 爭取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遊擊戰理論의 骨
자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게릴라」戰은 弱者가 大衆을 動員하여 自己勢力을 擴大,
強化하는 한편 敵을 孤立化하고 弱화시킬 수 있는 政治活動과 軍
事活動이 統合된 形態의 鬪爭이다. 敵의 目標이 되지 않도록 農
村地域에 分散하여 紅軍을 保存하고, 農村에 分散하여 大衆을 보다
많이 獲得하고, 土地改革을 深化하고 政權을 樹立하고 紅軍과 地方
武裝勢力을 加一層 擴大하는 것이 「게릴라」戰의 目標이다. 그러
나 「兵力을 分散하여 大衆을 動員할 뿐만 아니라, 兵力을 集中하
여 敵에 對抗」하고 敵을 弱화시켜 殲滅하는데 「게릴라」戰의 特
色이 있다. (毛沢東選集 第一卷)

② 「게릴라」戰은 本來 後方을 갖지 않는 作戰이나, 싸움을 長
期間에 걸쳐 持續하고 發展시키기 위하여는 根拠地가 없어서는 안
되므로 根拠地의 確保로서 「農村으로부터 都市의 包圍戰略」을 實
現하고 「持久戰」戰略을 充足시켜야 한다.

③ 「革命戰爭」은 戰略的으로는 持久戰의 性格을 띠는 것이나,
戰術的으로는 速決戰이요, 攻擊的인 性格을 띠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게릴라」는 敵의 弱點과 自己의 強點을 活用하여 通常
先制權을 掌握하고 敵을 誘引, 分散하여 殲滅할 수 있고, 여러곳에
서 同時的으로 小規模戰鬪를 展開하여 자그마한 勝利를 많이 蓄積
해 나가야 한다. 반드시 奇襲으로 敵을 攻擊, 擊破하고 迅速한
行動으로 撤収함으로써 反擊과 追擊을 不許한다. 攻擊과 迅速性은

「게릴라」戰의 生命이라는 것이다.

④ 「게릴라」部隊는 「게릴라」戰만으로는 勝利할수 없고 正規軍과의 適切한 協力下에서만 決定的인 效果를 發揮할 수 있다.

「게릴라」部隊가 正規軍에 協力하는 때는 세가지의 形態가 있다.

㉞ 敵의 後方에서 敵을 牽制하고, 敵의 兵站線을 마비시켜 敵을 弱화시키고, 敵에게 精神의 打撃을 주는 일이라든가 正規軍과 全國人民을 精神的으로 鼓舞하는 戰略上的 協力이 그 하나이다.

㉟ 敵의 後方に 있는 「게릴라」部隊는 內線상에 있는 正規軍部隊를 도와서 敵의 가장 弱한 地點에 대한 積極的인 行動을 取한다든가, 敵을 牽制한다든가, 敵의 兵站線을 威脅한다든가 하여 正規軍을 戰術的으로 補助한다.

㊱ 正規軍의 戰場 가까이 位置했거나 또는 正規軍으로부터 臨時的으로 派遣된 「게릴라」部隊는 正規軍指揮官의 指示에 따라 特定한 任務를 担当하게 된다. 卽, 一部の 敵을 牽制한다든가, 敵의 輸送網을 유린한다든가 敵情을 偵察하고 竊案內를 하는 등의 戰鬪上的 協力を 하게된다.

⑤ 「게릴라」戰을 正規戰으로 發展시킨다. 여기서 「게릴라」戰이 正規戰으로 發展한다 함은 決코 「게릴라」戰을 廢止함이 아니라 「게릴라」戰을 広範圍하게 展開해 나가면서 漸次的으로 正規戰을 實施」할 수 있는 主力을 形成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以上の 毛沢東의 遊擊戰의 主要骨子와 北韓軍 總政治局長 李勇武의 所謂, 「金日成戰略·前術」을 比較, 考察해 볼때, 北韓에서 強調

하고 있는 遊擊戰은 毛沢東의 「農村으로부터 都市의 包圍戰略」이나 「持久戰論」에서 主張하는 戰術中 極히 一部를 活用하겠다는 意圖로 評價된다.

北韓에서의 「게릴라」戰 使用 性格은 ① 正規軍이 崩壞된 境遇, 不可避한 使用도 아니고 ② 아직 正規軍이 組織되지 않은 境遇도 아닌 ③ 正規軍만으로는 對戰하기 困難하기 때문에 使用하겠다는 것으로 分析된다. 毛沢東이 遊擊戰의 實踐方案으로 提示한 「農村으로부터 都市의 包圍戰略」이나 「持久戰論」은 그 成立根拠가 모자라 自己勢力이 敵보다 劣勢에 있으니 空間的인 面에서 敵의 勢力이 及치지 못하는 農村地域에 根拠地를 構築하여 힘을 蓄積하여 싸우는 것이거나 時間的인 面에서 決戰을 廻避하고 自己 勢力이 強해질때 까지 長期間 戰爭을 持續시켜야 한다는 自己自身에 對한 冷徹한 評價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非正規戰 理論은 어디까지나 現代戰에 附隨的인 戰術로서 「敵背後 攪亂, 大小部隊活動의 結合, 敵背後에 第2戰線의 形成」等を 活用하겠다는 意圖로 分析되고 있다.

이와같이 그들의 企圖는 上述한 毛沢東의 遊擊戰理論의 骨子 ④ 項에서 「게릴라」部隊가 正規軍과 協力하는 3가지 形態에서 이미 記述되었으므로 再論을 避하고 「集中과 分散」, 「即時的 反攻戰과 連續的 打撃戰」에 對하여 毛沢東의 遊擊戰理論속에서 좀더 比較 檢討해 보자.

毛沢東은 「게릴라 兵力의 使用은 任務, 敵情, 地形, 住民等の 여

러 가지 條件에 따라 伸縮性있게 使用되어야 하는데, 그主要方法은 分散的 使用, 集中的 使用 및 兵力移動 (또는 陣地變換)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게릴라의 兵力을 分散的 使用하는 境遇」란 다음과 같은 狀況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① 敵이 守勢에 놓여 있고 我軍도 當分間 集中的 戰鬪의 可能性이 없으므로 넓은 正面에 걸쳐 敵을 威脅하고자 하는 境遇

② 敵의 勢力이 弱한 地域에서 敵을 攪亂하고 分裂하고자 하는 境遇

③ 敵의 包圍를 뚫을수 없을때에 敵의 注意를 산만시켜 包圍로부터 脫出하고자하는 경우

④ 地形 및 補給이 制限되어 있는 境遇

⑤ 廣大한 地域에서 大衆運動을 展開시켜야 하는 境遇 等이다.

그러나 어떠한 境遇든지 간에 分散行動을 取한데 注意하여야 할 事項은 萬一の 境遇에 對備하여 主兵力을 機動的으로 使用하기에 適切한 地域에 集中, 保有하여 두어야 하지 決코 絶對的인 平均分散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음 「分散되어 있던 兵力을 한곳으로 集中하여 使用하는 境遇란 通常 攻峯해 들어온 敵을 殲滅하는 境遇와 守勢에 놓여 있는 敵의 駐屯部隊를 殲滅하는 境遇이다」라고 記述하고 있다.

이와같은 「集中과 分散」戰術은 結局 主力을 集中하여 어느 하나의 重要한 方向으로 使用하되 그외의 方向에 對하여도 一部の 兵力을 使用하여 敵을 牽制, 攪亂, 粉碎하고 民衆運動을 伸縮性있게

展開해야 한다는 것으로 集約될 수 있을 것이다.

「即時的 反攻擊戰과 連續的 打擊戰」은 毛沢東의 「反圍剿」戰術로 分析되는바 이것은 反包圍攻擊 (Counter-attack) 으로서 「게릴라」戰이 活潑하게 進行되면 必然的으로 「게릴라」根拠地에 대한 包圍攻擊作戰을 展開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狀況下에서 「게릴라」部隊는 有利한 地形으로 敵을 誘引하여 「反包圍攻擊」의 形態로 対応해야 한다는 것이다.

反包圍攻擊의 內容은 敵이 여러 方向에서 「게릴라」部隊에 對하여 包圍攻擊을 加하여 올 때 「게릴라」의 方針은 敵의 包圍攻擊을 擊破하고 反包圍攻擊의 形態를 取해야 하며 「게릴라」는 補助兵力으로써 여러方面의 敵에 對한 奇襲攻擊(主로 埋伏作戰)을 實施하여야 한다.

아무리 強한 敵이라도 여러번 繼統的인 奇襲을 받고 나면 中途에서 撤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때 「게릴라」는 敵을 追擊하면서 奇襲攻擊을 繼續하여 敵을 더욱 弱화시킬 수 있다고 記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毛沢東의 遊擊戰理論을 北韓이 將次戰에서 使用하겠다는 明白한 企圖를 判斷할 때에 理論的 背景을 毛沢東의 遊擊戰理論에서 糾明하는 것은 至極히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非正規 戰術은 이미 北韓이 지난 6.25 戰爭을 前後하여 使用한 바 있어 別로 새로운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더구나 毛沢東의 遊擊戰理論은 中共軍이 1950年 10月以後 韓國戰에 參戰하여 初期

段階에서는 많은 成果를 얻었으나 1951年 4月부터 5月 사이에 春川에서 實施한 中共軍의 大攻勢가 大敗北로 끝났을 때에는 優勢한 火力과 適切한 現代的 航空戰力을 갖춘 現代化한 軍事力 앞에는 많은 弱點을 露出한 것이 事實이다.

이 段階에서는 毛沢東의 많은 軍事著書에 反映된 中共의 傳統的인 遊擊戰理論은 現代戰에서는 그 理論的 弱點을 避할 수 없는 것임을 痛感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中共의 戰略思想은 毛沢東戰略에서 近代化를 斷行해야 하는 契機를 接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韓國戰이 끝난 1954年부터 1958年 사이에 中共에서는 中共軍의 遊擊部隊의 編成에서 正規軍으로 改編하고 이를 爲한 裝備의 近代化를 緊急히 推進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을 實行하기 爲해 當時 中共의 能力은 不足한 狀態였으므로 蘇聯의 援助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었다.

軍事思想面에서도 再次 正規化가 要望되었고, 더우기 蘇聯化의 傾向이 농후해졌다고 본다. 이때 中共軍의 主役으로 登場한 者가 바로 國防部長 彭德懷였다. 그는 軍의 近代化를 爲한 再教育和 遊擊戰思想으로부터의 脫皮를 부르짖었다. 軍의 近代化를 達成하기 爲하여 編制, 裝備, 教範 및 法制에 이르기까지 蘇聯을 中心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彭德懷의 이러한 主張으로 思想的 戰力의 輕視와 物質的 戰力의 重視傾向이라는 非難과 함께 그는 곧 林彪에 依하여 肅清되었다.

中共에서는 現在 2個의 戰略思想이 發展되고 있는바 그하나

毛沢東思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核戰略으로의 接近이다. 1959年 林彪가 國防部長에 就任하면서 同年 9月 30日 人民日報에서 「党的 總路線과 毛沢東의 軍事思想의 赤旗를 높이 들고 勇進하자」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는데 이 論文에서는 軍隊의 近代化의 段階에 있어서 政治의 指導가 어느 程度 重要한가에 對하여 問題를 提議하고 ①軍에서의 政治工作 및 思想工作의 強化 ②軍에 對한 党的 指導 強化 등을 論한 바 있다. 또한 그는 1965年 9月 「人民戰爭 勝利萬歲」를 發表하였는데 이것은 當時 毛沢東의 遊擊戰理論과 革命戰爭理論을 繼承한 越盟의 「보·구엔·지압」이 越南戰을 有利하게 이끌어 가고 있음에 힘입어 다시 한번 毛沢東의 戰略·戰術을 讚揚하고 他後進國에 輸出을 勸策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나. 金日成의 軍事戰略

金日成의 軍事戰略은 革命戰爭의 戰略과 電擊戰(Der Blitzkrieg) 戰略으로 構成되어 있다.

北韓이 이와같이 革命戰爭의 戰略과 電擊戰의 戰略을 同時에 採擧하지 않을 수 없었던 理由는 그 어느하나의 戰略만으로는 決코 對南赤化를 成就시킬 수 없다고 判斷했기 때문으로 判斷된다. 그들이 2個의 戰略을 同時에 推進시키고 있는 徵候는 最近 北韓의 軍事의 活動에서 많이 發見되고 있다.

첫째, 所謂 金日成의 軍事戰略인 「現代戰과 革命戰爭의 合法則性」이란것은 金日成이 第5次 全党大會에서 「他國의 戰法 및 武器를

教條主義的으로 模倣 말고 現實과 6.25 戰爭經驗을 土台로한 새로운 教理로 發展」 시키라는 指令에 따라 1971年 2.8 節記念辭에서 當時 民保副相이고 總政治局長인 韓益株에 依하여 發表된 것으로 여기사 말하는 現代戰은 電擊戰이요, 合法則性은 合理的으로 結合한다는 뜻을 內包하고 있다.

둘째, 北韓軍은 最近 非正規戰 및 革命戰爭을 遂行하는 人民武力部 直屬의 特殊8 軍團, 各集團軍 隸下의 2 個의 輕步兵旅團(後方軍團 1 個輕步兵여단) 그리고 隸下 各梯隊內에 輕步兵部隊의 體制 및 訓練을 集中的으로 強化시키고 있다.

셋째, 北韓軍의 武器體系發展은 兩面性을 보이고 있는데 最近 電擊戰의 2 大主武器인 新銳航空機 및 最近戰車를 大幅的으로 增強시키는 反面 輕步兵部隊에서는 武器의 輕量化를 期하고 있다.

넷째, 北韓軍은 最近 機甲作戰이 可能的인 西部 및 中部地域에서 탱크部隊를 集中, 配置하였으며 26 個步兵師團中 3 個車輛化師團 1 個戰車師團을 保有하는等 機動力의 增強에 總力を 傾注하고 있다.

다섯째, 航空機에 依한 奇襲攻擊 및 空中防禦能力 發展을 爲한 夜間爆擊, 盲目爆擊訓練의 強化 및 遊擊, 管制 能力을 大幅 向上시키고 있다.

여섯째, 東, 西海에서 獨立作戰이 可能하도록 北韓海軍의 編制改編과 同時에 奇襲作戰用인 OSA 警備艇, 高速漁雷艇 및 潛水艦의 增強을 서두르고 있다.

最近 金日成의 軍事戰略이라는 것은 毛沢東이 提唱한대로 革命戰

爭의 3段階展開過程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段階인 大衆動員段階가 成熟되고 「게릴라」戰을 遂行할 수 있는 時期가 到來하면 特殊 8軍團을 南韓後方 깊숙히 投入, 「게릴라」戰을 誘發하면서 同時에 電擊戰으로서 軍事的 總攻勢를 敢行할 것으로 予想되며 同電擊戰에서도 輕步兵部隊에 依한 正規 및 非正規戰을 同時에 配合 使用할 可能性이 充分히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그들의 企圖는 上述한 바와 같이 最近의 北韓軍 編制의 改編, 武器體系의 繼續的인 改良, 不斷한 訓練의 樣相에서 結論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大衆을 動員하여 大衆의 支援下에 政治活動力을 軍事活動과 統合, 使用하면서 遊擊戰과 持久戰에 立脚하여 現政權을 顛覆시키는 革命戰爭理論은 이미 前項에서 辭退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北韓이 計劃하고 있는 電擊戰에 對해서만 考察하기로 한다.

北韓은 지난 10.6 4次 中東戰爭이 突發하여 「에집트」第2軍團이 「시나이」半島에 橋頭堡를 構築하는데 成功하자 이와 때를 같이 하여, 北韓은 10.8~10.12 까지 軍事指揮官 및 政治軍官 2萬余名을 平壤體育館에 召集하고 同席上에서 「全軍幹部化, 全軍現代化方針貫徹結果, 現實에 맞는 具體的 戰法으로 어떠한 攻擊도 打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發表 했다. 金日成은 또한 「戰鬪力을 四方으로 높여 一當百 一當千의 革命武力으로 強化」하는 指針을 下達한 바 있다.

이들이 追求하는 現代戰이 電擊戰이라고 判斷하는 本質的 理由는

全面核戰爭이 아닌 制限戰爭 및 在來式 局地戰中에서 가장 現代化 된 것이 바로 機甲部隊와 新銳 戰爆機를 主軸으로 하고 空輸 特攻隊를 副次的으로 使用하는 電擊戰이기 때문이다.

北韓의 電擊戰은 韓國에 對한 奇襲攻擊으로 부터 開始될 것이 予想된다. 奇襲攻擊에서의 北韓의 新銳航空機는 我側 航空機 및 「미사일」의 反擊으로 相當한 制限을 받을것이나 數的으로 3 倍의 優勢를 占하고 있는 現狀況下에서는 적지 않은 數의 敵機는 休戰線에서 不過 數分 距離內에 位置한 韓國의 政治, 經濟, 指揮 및 通信 等の 集結地인 서울에 對한 集中 攻擊을 敢行하면서 後方地域의 軍事施設 및 產業施設을 攻擊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敵의 戰略的 目標은 主로 韓國의 心臟部와 神經組織에 對한 直接 攻擊으로 韓國民을 心理的으로 混亂에 빠트리고 戰爭에서 勝敗의 要因인 士氣의 低下를 企圖하면서 抵抗意志를 初期에 大幅 破壞시키려 할 것이다.

이와같은 最初 數時間의 航空機攻擊에 後続하여 後方 깊숙한 地域에 特殊 8 軍團을 主軸으로한 特攻隊를 空輸投下시킬 것이며 이들은 產業 및 軍事施設에 對한 攻擊을 敢行할 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西部 및 中部에서 서울에 이르는 軸線에는 敵의 機甲部隊를 先頭로한 車輛化師團의 機動攻擊이 非正規戰 部隊를 我側 前方部隊 後方に 投入하면서 開始될 可能性이 있다. 機甲部隊는 我側의 戰略的 脆弱地點으로 判斷한 地域에 集中的으로 投入, 迅速한 戰線 突破로서 我軍의 後退路를 차단하려고 할 것이며 我軍의 後方地域

으로 進出하여 다음 目的을 達成할 수 있도록 機動할 것이다.

- ① 我軍의 配置를 顛覆시키고 急激한 前線의 變化를 強要함으로서 我軍의 配置와 編成을 混亂시키는 機動
- ② 我軍의 部隊를 分散시키는 機動
- ③ 我軍의 兵站線을 危脅하는 機動
- ④ 我軍의 後退路를 차단하는 機動

그리고 漢江以北에서 決戰을 試圖할 것으로 予想된다.

金日成은 6.25 戰爭失敗原因分析에서 1950 6.25 奇襲攻擊에서 韓國軍의 主力을 漢江以北에서 包圍殲滅시키지 못하고 主力을 後退케 만들었다고 指摘한바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奇襲과 機動은 相互 補充作用을 할 것이며 韓國國民 및 韓國軍의 抵抗意志를 破壞 및 混亂시키는데 重點을 둘 것이다. 現代의 高度로 發達된 通信裝備에 依拠, 北韓의 攻擊準備을 爲한 航空機의 前方 推進基地에 移設, 配置하는 軍事動向과 機甲部隊의 前方集結等を 探知한다 해도 <奇襲이라는 것은 心理的인 效果를 目標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北韓의 奇襲企圖가 事前에 探知된다 하더라도 我側에서 先制攻擊을 加하지 않는한 그들이 企圖하는 目標은 相當한 程度까지 獲得可能할 것으로 注意를 要한다.

그리고 北韓은 이와같은 奇襲과 機動에 依하여 獲得한 成果를 繼統적으로 擴大하여 無謀한 前進을 繼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最初의 거둔 成果를 迅速히 確保하여 놓고 卽, 有利한 戰略的 狀況을 造成하여 놓고 一段階로 政治協商을 提議함으로 美軍 및 其

他 友邦國의 支援 口實을 封鎖시키려는 方策을 使用함으로써 戰爭을 持久戰으로 끌고 가지 않을 可能性이 濃厚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長期戰에 依하여 韓國을 軍事的으로 占領할 獨自의 越等한 戰爭遂行 能力은 相對的으로 確保하지 못하였으며 아무리 그들의 奇襲攻襲의 效果가 크다고 할지라도 韓國軍의 防衛 能力은 곧 이들의 企圖를 粉碎할 수 있는 反擊力을 保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美空軍의 能力을 世界 누구도 보다는도 切實하게 體驗했기 때문에 그들의 戰略은 速戰 速決主義에 立脚한 政治的 解決을 希望할 것이다. 지난 4次 中東戰에서 埃及이 目標했던 戰略 卽 「시나이」에 橋頭堡를 構築하여 놓고 더 以上 無謀하게 前進함이 없이 이를 繼續 強化하면서 強大國을 通하여 休戰을 誘導하려 했던 戰略에서 北韓은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北韓은 正規軍의 攻襲을 中止하여 戰線을 固着시키면서 後方地域에 對한 「게릴라」戰을 繼續함으로써 現代戰은 速戰速決의 原則下에 終結시키고 以後에는 革命戰爭의 戰略에 依한 持久戰 및 遊擊戰을 繼續 推進하여 韓國을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混亂을 促進시켜 그들의 政治的 目標을 段階的으로 實現시키는 戰略을 考慮하고 있을 可能性이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은 金日成의 軍事戰略은 그들이 追求하는 諸般 軍事路線, 그리고 그들이 最近 取하고 있는 一聯의 政治動向에서 얻은 그들의 軍事的 企圖로 分析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1969年 以後 追求하여온 獨自의 南侵戰爭 遂行

政策은 蘇聯 및 中共으로부터 完全한 意味에서 그 拘束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世界緊張 緩和 政策을 違背하고 奇襲攻擊을 敢行하는 것은 많은 制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蘇聯 및 中共의 窮極의 國家目標가 世界赤化에 있다는 것을 考慮한다면 北韓의 奇襲과 機動은 時間이나 方法上의 問題이지 可能如否의 問題는 아닌 것으로 注意해야 할 것으로 評價된다.

3. 北韓의 軍事力分析

가. 序 論

1) 軍事力의 意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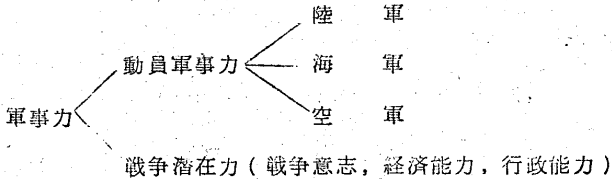
美國의 Klaus Knorr 教授는 「軍事力이란 國家的 利益의 具體的 衝突을 解消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이다」라고 했고 H.J. Morgenthau 教授는 「軍事力이란 軍備를 말하며 이 軍備는 權力 鬭爭에 있어서 最終的인 調停者」라고 했다.

Clausewitz 는 「軍事力이란 政治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手段으로 그 軍事力의 目標는 敵의 抵抗力을 破壞키 爲한 暴力의 無界限의 行使」이라고 했으며 日本의 高橋甫는 「軍事力이란 國家目標을 達成하기 위한 總戰力(軍事力, 經濟力, 思想的, 政治力) 가운데서 軍事活動에 關聯되는 國力의 一部」라고 定義했다. 通常的으로 軍事力은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한 直接的이고 實質的인 國力의 一部로서 軍事作戰을 遂行할 수 있는 軍事的인 能力과 力量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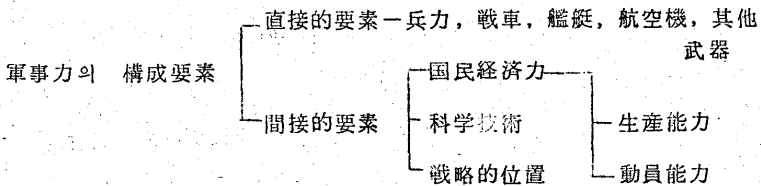
國家의 外交政策과 對外的인 經濟政策 그리고 宣傳政策의 모든 背景에는 軍事力이 絶對的으로 作用해 왔으며 軍事力이 弱한 나라가 對外活動에서 積極的인 面을 보이지 못하였던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第1次 및 2次 世界大戰後- 軍事力의 概念에 變化가 이루어져 왔다. 그 理由는 現代戰의 非決定性에 따른 政治的 目的의 達成이 困難해졌기 때문이다.

2) 軍事力의 構成要素

Knorr 教授는 軍事力의 構成要素를 動員된 軍事力과 戰爭潛在力의 有機的 結合에 있다고 했는데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美國의 Richard C. Synder 와 Edgar S. Furniss 教授는 国力이라는 것은 軍事的인 힘, 經濟的인 힘, 政治的인 힘의 總和로써 軍事力의 構成要素도 国力의 다른 要素와 密接한 關係에서만 分析할 수 있다고 그 內容을 다음과같이 表示하고 있다.



上記 2 個의 定義는 同一한 內容으로 動員된 軍事力이 直接的 要素와 戰爭 潛在力이 間接的 要素와 相通된다고 할 수 있다.

나. 北韓의 現在軍事力

1)北韓의 軍事制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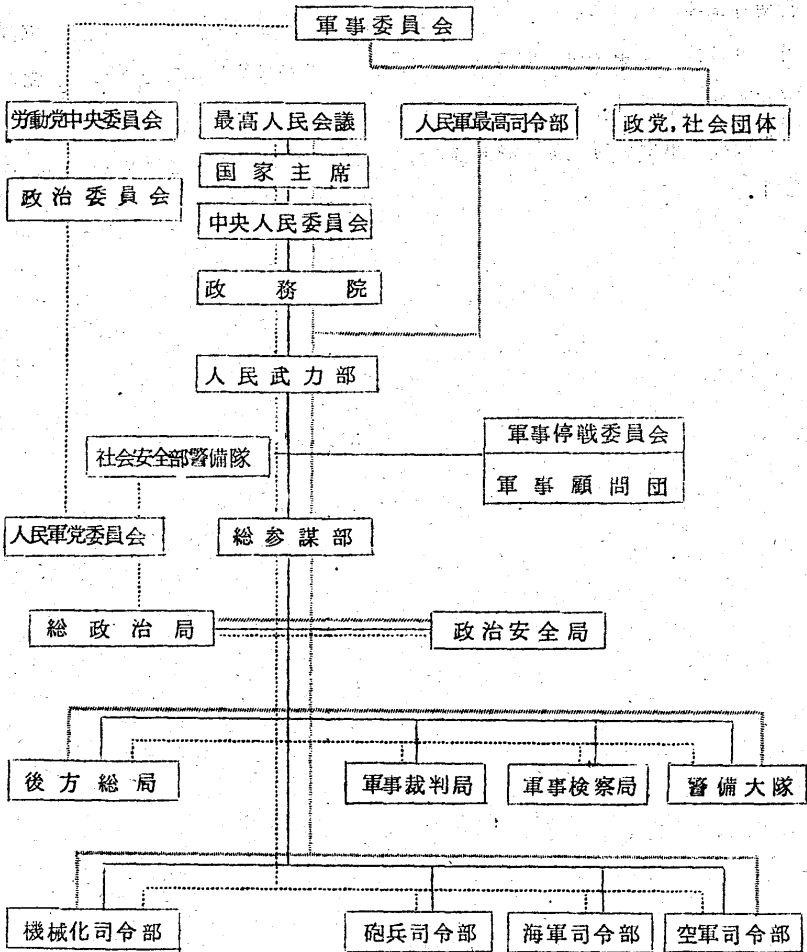
北韓의 軍事制度上 特性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① 軍의 統帥權은 國家가 아니라 黨이 갖는다. 憲法上은 最高人民會議에 歸屬되도록 되어 있으나 實際上 勞動黨에서 管掌하고 있다. 戰時에는 軍事委員會가 設置되어 이곳에서 軍의 統帥權을 行使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軍은 憲法上의 「人民의 軍隊」가 아니라 黨規約에 明示된 바와같이 勞動黨의 武裝力으로 「黨의 軍隊」인 것이다.

北韓의 軍事機構 및 統帥權의 系統을 圖式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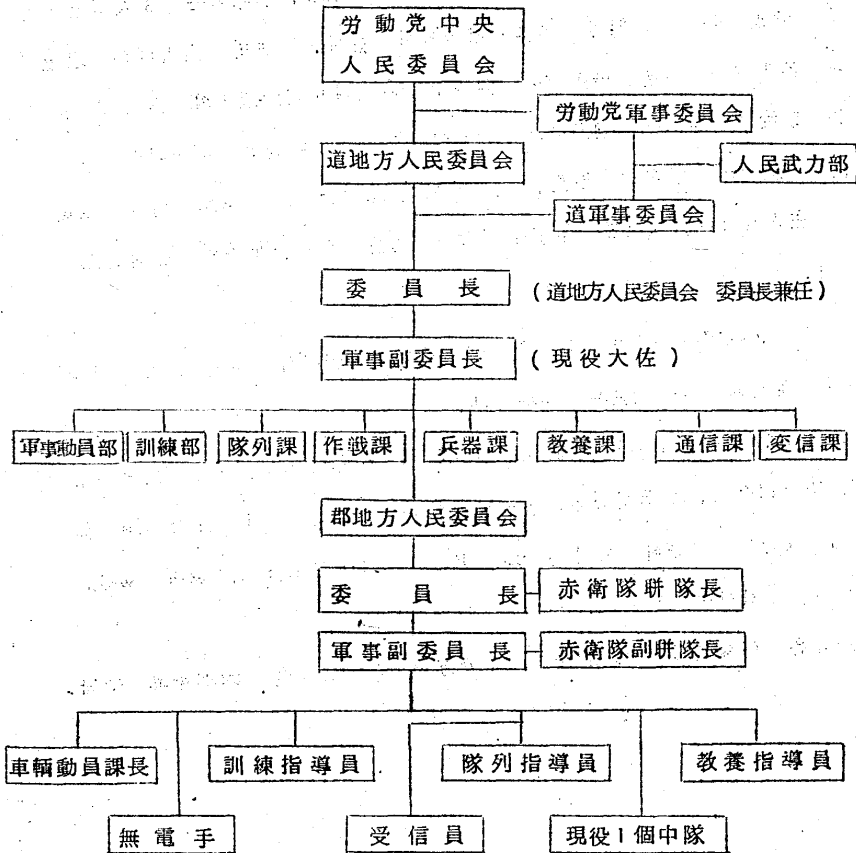
図表1. 軍事機構 (1973.年現在)

—— 理論上命令系統
 實際的
 戰時



다음은, 4大軍事路線의 執行을 統制하기 爲하여 1962年 設置된 黨軍事委員會 및 各級 黨委員會內에 軍事機關을 表示한 것이다.

圖表 2. 黨軍事機構表 (1973年現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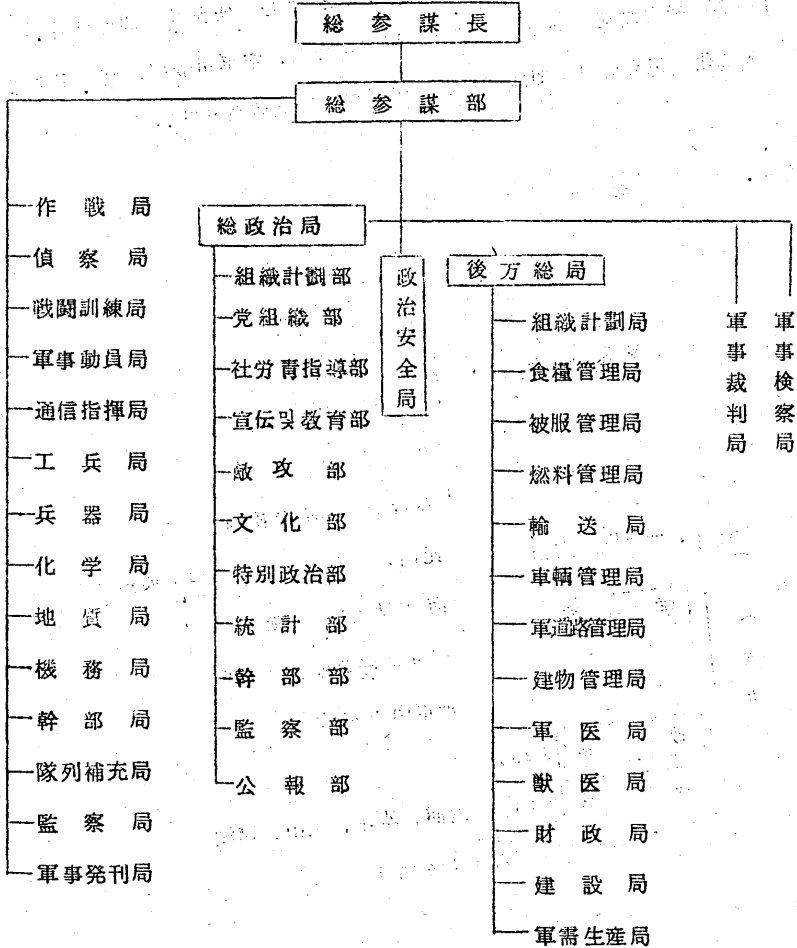
② 共產主義國家 軍隊特有的 政治將校制度가 極度로 強化되어 軍內 黨組織과 活動은 党中央委員會 直屬의 北韓軍黨委員會가 總括的으로 管掌하도록 되어 있다. 人民武力部長이 北傀軍黨委員長을 兼하고 있으며 그 傘下에 各軍黨委員會, 集團軍委員會, 師團委員會, 聯隊委員會, 大隊에는 初級黨, 中隊에는 黨分組脫, 小隊에는 3人以上으로 構成되는 黨分組가 各各 組織되어 있다. 또한 集團軍級 以上の 各級黨委員長은 指揮官이 兼하고 있으나 師團以下の 各級委員長은 政治副指揮官이 担当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은 軍內에서 金日成唯一思想의 要塞的 役割을 担当하고 있으며 政治思想教育을 徹底히 注入시키며, 甚至於 軍事指揮官의 思想 및 行動까지 點檢하고 있다.

③ 北韓軍은 第2次大戰을 前後하여 蘇聯에서 採択하였던 바와 같이 地上軍 第一主義를 採択했다.

地上軍은 總參謀部에서 直接, 管掌하고 總參謀部 隸下에 海軍司令部, 空軍司令部, 砲兵司令部, 機械化司令部를 두는 三軍 統合主義 體制를 取하고 있는데 이것은 地上軍 中心의 三軍合同作戰의 効率的 遂行을 期하려는 것이다.

다음은 額參謀部 總政治局 및 後方總局의 組織을 表示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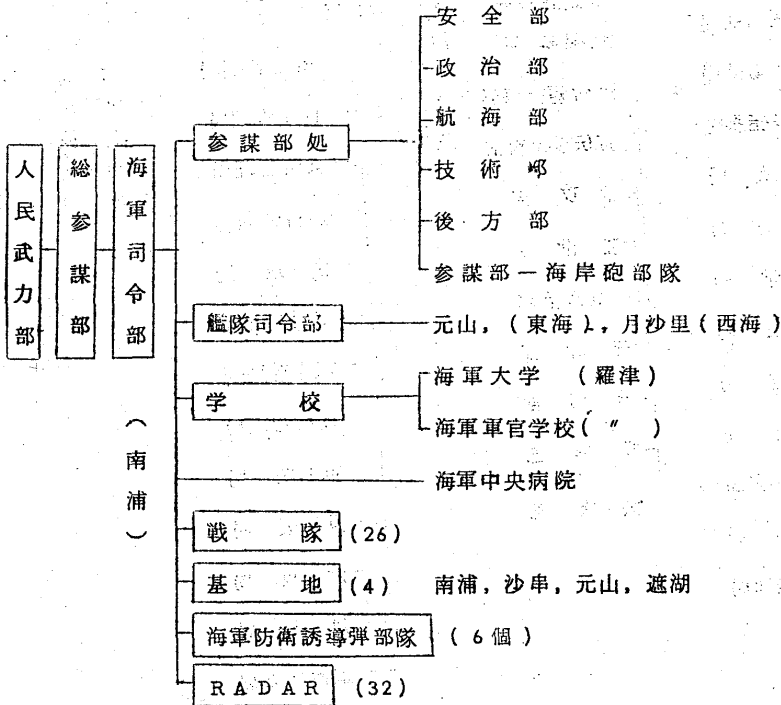
圖表 3 . 總 參 謀 部



總政治局은 勞動黨 中央委員會가 批准한 指導書에 根拠하여 北韓 軍内に 있어서의 黨事業을 組織, 執行하는 機關이며 政治安全局은 軍内の 特務役割 部署로서 軍内の 思想犯을 檢査하며 軍人の 身元과 軍官家族들의 動態를 恒時, 調查, 把握하는 任務를 遂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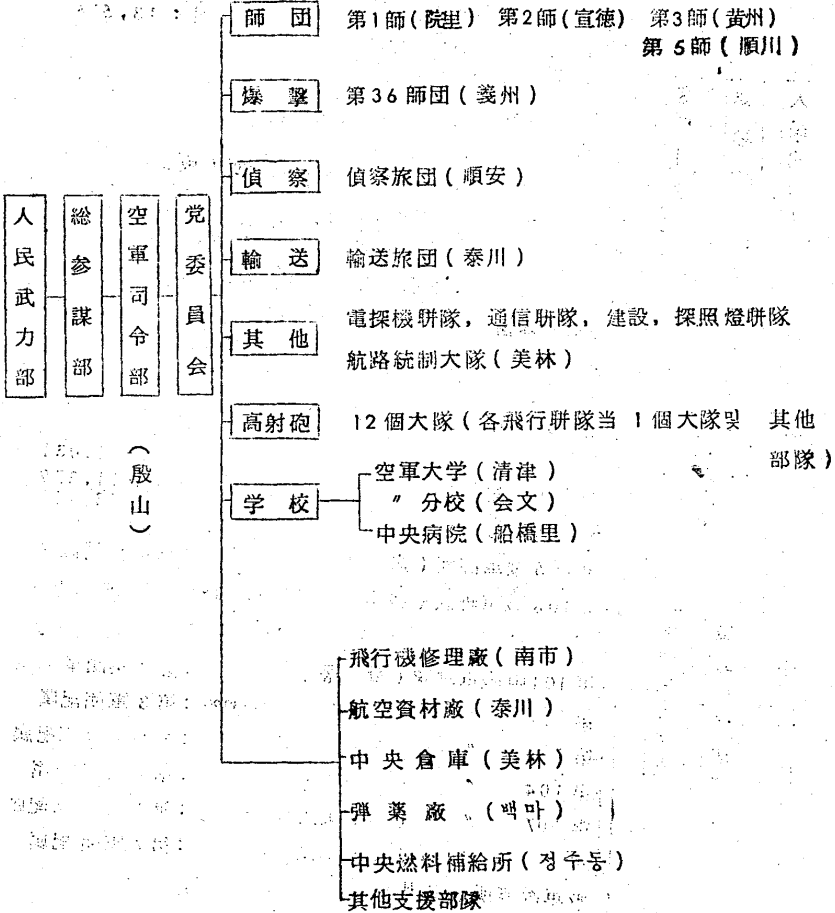
다음은 總參謀部 隸下에 있는 海軍司令部, 空軍司令部, 砲兵司令部 및 機械化 司令部的 組織과 隸下部隊의 組織體系이다.

圖表 4. 海 軍 司 令 部



圖表 5.

空 軍 司 令 部



圖表 6 .

砲 兵 司 令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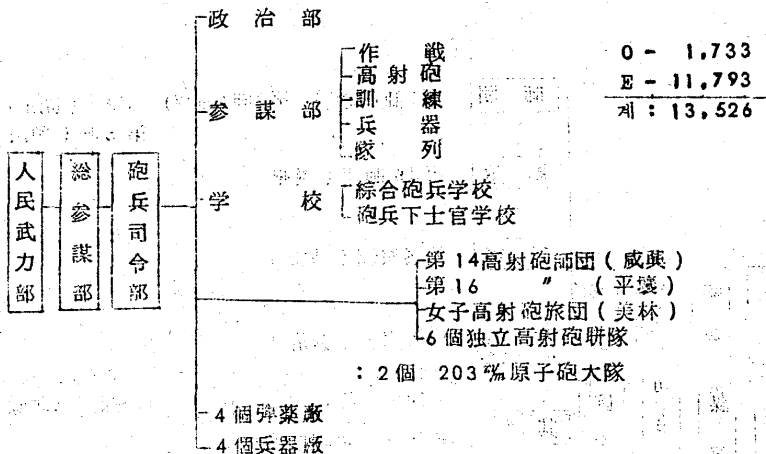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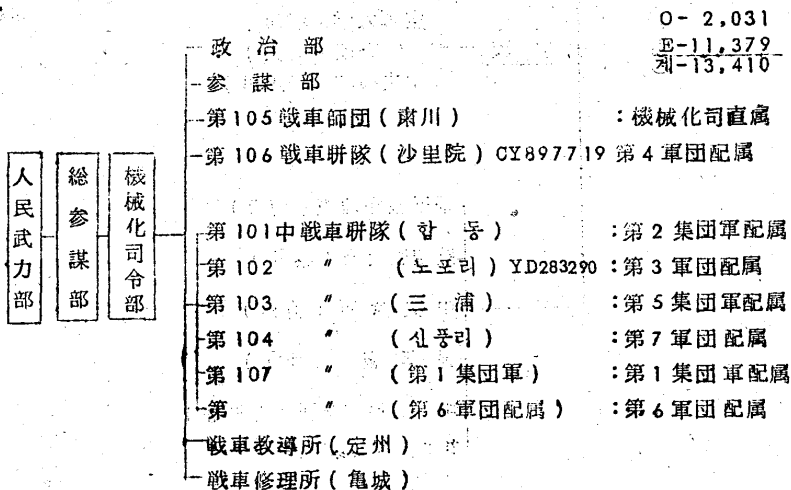


圖 7 .

機 械 化 司 令 部



다.北韓의 戰爭潛在力

1) 戰爭潛在力의 意義

軍事力이란 어느 特定時期에 있어서 그國家의 動員된 軍事力 (mobilized military power) 과 戰爭潛在力 (war potential) 으로 構成된다.

戰爭潛在力이라 함은 廣義와 狹義로 区分될 수 있는바 廣義로서는 「戰鬪力 自体를 除外한 軍事力에 關聯되는 모든 要素를 말하는 集合的인 用語이며, 國家의 戰爭潛在力은 軍事潛在力 以上の 것으로 戰爭時 또는 國際緊張時에 軍事力을 動員하는데 있어서 뒷받침하는 有形的, 無形的인 힘의 總稱으로서 政治, 經濟, 工業, 社會心理 및 軍事的 諸要素로 본 한 國家의 戰爭遂行能力」이다.

狹義로는 「國家가 有事時에 그兵力과 戰鬪力을 遂成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北韓의 戰爭潛在力의 範圍를 北韓의 戰意 經濟的인 能力 및 行政能力으로 大別 考察하겠다.

2) 北韓의 戰意

가) 北韓의 戰爭動機

一般的으로 戰爭의 原因은

- ① 社會的 原因: 生存競爭의 하나의 形態
- ② 社會心理的 原因: 人間의 鬪爭本能
- ③ 政治的 原因: 戰爭은 政治의 道具 (Clausewitz)
- ④ 經濟的 原因: 戰爭의 原因一切는 經濟에 歸一

([마르크스·레닌論])

以上の諸原因으로 分類할 수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諸原因의 複合으로 戰爭이 發生하고 있으며, 戰爭은 그 社會의 發展段階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北韓의 戰爭動機는 무엇이며 왜 金日成一黨은 民族相殘의 莫大한 犠牲에도 不拘하고 戰爭政策을 拋棄차 않고 있는가

北韓의 對南赤化의 武力的解決手段을 追求해온 名分은 그들의 最高權力機關인 勞動黨의 規約 前文에 明示되어 있다. 즉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南韓을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의 独占과 그 走者들의 反動統治로부터 解放하고…… 祖國의 完全한 統一을 達成하기 爲하여 鬪爭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그들의 政治口號는 毛沢東과 胡志明이 中國 및 越盟에서 提唱한 政治目標과 類似하며 毛沢東과 胡志明이 長期에 걸친 「게릴라」戰을 展開하여 거둔 軍事的, 政治的 勝利는 北韓의 戰爭動機를 鼓舞하고 있으며 正當化시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

北韓의 戰爭動機는 政治的인 原因이 強한 比重을 占하고 있으며 그들은 이 戰爭動機를 戰爭準備뿐만 아니라 對內的 統治體制를 安全해은 點을 無視할 수 없다. 人民의 犠牲은 戰爭動機를 口實로서 強要되어 왔으며, 政治權力에서 反對派의 肅清理由는 北韓 戰爭動機를 活用함으로써 無摩되어 왔다.

따라서 北韓이란 政治集團은 創建初期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對南赤化實現이란 政策을 最高綱領으로 設定하여 놓고 이의 實踐을 爲하여 總力을 傾注하여 왔기 때문에 北韓政治自体는 對南赤化와

不可分에 關係가 形成되어 있다고 하해도 過言이요 아닐 것이다.

北韓의 戰爭動機는 北韓의 政治力을 通하여 戰意로 造成되며 또한 北韓은 戰意造成에 政治뿐만 아니라 北韓의 教育, 文化, 言論等을 總動員하여 人民의 精神構造自体를 「共產革命의 戰士」로서 固定化시키려고 血眼이 되고 있다.

이렇게 造成된 戰爭動機는 動員의 速度와 그 質的인 充實度를 決定하기 때문에 決코 過少評價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北韓의 戰意造成

北韓人民들의 戰意造成은 20代와 30代 以下들에게는 徹頭徹尾하게 体系的이고 思想的으로 形成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北韓 教育의 目的은 「共產主義 人間形成」이며 「金日成이 生覺하는데로 生覺하며, 말하며, 行動하며」, 「하나는 全体를 위하여」犧牲할 수 있는 人間型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北韓 敎員들은 職業人이 아니고 革命家요 敎員은 單純한 知識의 傳達者가 아니라 「붉은 戰士」를 育成하는 革命鬪士로서 敎壇에 서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음은 北韓의 젊은층의 思想構造를 理解하려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北韓의 教育基本方針은 自由主義 國家에서와 같이 「各個人의 個性을 發展시켜 自由스러운 思想力과 醇化된 情緒를 培養하는데에 있지않고, 다음 세가지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①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基礎한 自然, 社會 및 思想의 一般的 法則에 關한 知識을 注入시키며, 同時에 弁證法的 唯物史觀을

바탕으로 하는 共產主義 世界觀을 確立시키며,

② 労働黨과 金日成 首領에 忠直한 唯一思想體系로 武裝케 하며,

③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을 實際로 體驗할 수 있는 革命家로 養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와같은 基本方針을 貫徹하기 위하여 各級學校에 教育指針(그들은 教授要綱이라고함)을 下達하고 있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 貫徹하는 精神武裝

② 社會主義, 共產主義制度의 優越性 宣傳

③ 階級意識 教養

④ 反宗教思想注入

⑤ 事物에 대한 唯物論的 考察方法 培養

⑥ 金日成 偶像化 教育 等이다.

이와같은 教育의 方針은 託兒所로 부터 始作하여 幼稚園(1年), 人民學校(4年制), 高等中學校 中等班(4年制), 高等班(2年制) 高等技術學校(3年制)나 大學校(4-6年制), 그리고 研究院(3-4年制) 博士院(3年)을 通하여 繼統적으로 適用되고 있으며 託兒所 및 幼稚園에서는 集團生活를 通한 個人主義性格의 抹殺, 人民學校에서는 國語 課目 및 「少年團」生活를 通하여 反帝思想을 길러주고 敵對階級으로 몰아세운 地主, 資本家를 憎오하도록 誘導하며 黨과 金日成에 對한 忠誠心을 높혀 주기 위하여 온갖 努力이 傾注된다.

人民學校의 國語 科目과 함께 高等, 中學校의 文學, 高等(高等中

学校 高等班) 및 高等技術學校의 文學原論 등의 內容은 金日成 偶像化를 爲한 主題가 全分量의 約 80%를 차지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金日成唯一思想理論은 少年團과 社勞靑組織生活을 通하여 實踐하도록 體體化 되어 있다.

이와같이 徹頭徹尾하게 「마르크스·레닌」主義 革命理論에 立脚한 共產主義 世界觀과 金日成唯一思想으로 武裝된 北韓의 20代 및 30代는 人間의 基本人權의 尊嚴性에 對하여 批判할 素養 보다는 오직 黨과 首領을 爲한 革命에 바쳐지는 無限忠誠(党性)과 行動에 있어서의 盲從을 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實情이다.

北韓의 教育基本方針은 教育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音樂, 美術, 文學, 言論 등에 諸分野에 같은 形態로 適用되고 있으며 學校生活에서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고 農民, 勞動者, 事務員, 軍人들에게 對하여 不斷히 反復教育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契証은 지난 1970年 12月 3日 MIG-15를 몰고 東海岸에 不時着한 北韓軍 空軍少佐 朴順玉이 「黨 細胞로서 每週 3日間, 1日에 2時間씩 夜間에 政治思想教育을 받았으며, 이렇게 徹底한 思想敎養을 받고도 항상 部隊內 政治軍官으로부터 계속 보이지 않는 監視를 當하였다」는 데서 그 一端을 볼 수 있다.

北韓의 人民은 金日成과 勞動黨으로부터 「革命的 戰士」로 何時何處에서도 命令一下에 戰列를 갖출 수 있도록 思想的으로 武裝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思想政策은 20代 및 30代 젊은 層에게는 많은 成果를 얻고 있는 것으로 判斷할 수 있다.

北韓의 20代 및 30代가 對南赤化의 暴力的 手段에 依한 解決과 統一을 爲해서는 軍事的 手段 밖에 없다는 金日成과 勞動黨의 路線에 無限忠誠을 보이며, 이와같은 思想으로 團結되어 있음은 將次 韓國의 統一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하는데 많은 難關이 될 것이며, 民族의 外面의인 統一뿐만 아니라 四面의인 統一을 達成하는데 大端히 큰 障礙要素가 될 것으로 予想된다.

그러나 金日成이 아무리 武力에 依한 對南赤化 思想을 全人民에 注入하더라도 戰爭自体에 對한 個個人의 反應은 낮은 動機와 높은 動機로 複合되어 있으며 人間인 以上 劃一的이고 機械的으로 處理되는데 限界가 있을 것이다.

攻擊을 하는 者는 自身이 攻擊을 當할수 있는 것이며, 戰爭은 個個人에게 많은 犧牲을 強要할 것이다. 또한 最近에 대두되는 戰爭의 非決定性과 勝者도 敗者도 區別하기 힘들 程度로 武器體系의 科學化 및 高度의 發達은 個人에게는 오직 犧牲 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報償없는 犧牲의 甘受를 強要하는 것은 全人民의 所望을 支配하는데 커다란 作用을 할 것이나 個個人 全部가 個人目標을 達成할 수 없이 損失만 招來된다고 結論을 내린다면 金日成과 黨의 努力과는 反對로 戰意의 弱化를 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實際的인 狀況은 이러함에도 北韓 社會에서는 自身の 낮은 動機는 隱蔽하려고 할 것이며, 戰爭에 대한 높은 動機만을 내세워

発表함으로써 自身이 思想的으로 批判받는 것으로 부터 迴避하려 할 것이다.

3) 北韓의 經濟的 能力

가) 北韓의 人的 資源

(1) 人 口

北韓의 人口는 1960年度에 1千 56万名으로 1千万 線을 넘고 있으며 年平均 人口 增加率 3%로서 人口膨脹主義를 挾하고 있다. 1972年 現在 總人口는 1千 4百 69万으로 男子 724万(49.3%), 女子 745万(50.7%)에 達하고 있다. 國防에 있어서 緊要한 要素中에 하나가 人的 資源임에는 틀림 없으나 오늘날 國際政治社会에서 볼때 量的인 面에서 單純한 人口의 大小가 國富의 格差를 区分할 수 없는 것이며 그보다는 한國家의 國民의 質的인 優劣에 따라 國力이 左右되고 있음은 明白한 事實이다.

다시 말하면 國民의 文化的 天稟, 民族性, 勞働性向, 教育 및 勤 勉性이 國力形成에 重要한 役割을 担当해 온 것이다. 韓民族의 特性中 長點은

- ① 穩純한것
- ② 忍耐力이 強한것
- ③ 禮儀가 바른것
- ④ 藝術 및 學文을 사랑하는것 等이며

短點은

- ① 團結力이 不足한것

② 依他心이 많은것

③ 進取性이 不足한것 등을 들수 있다.

北韓이 이와 같은 韓民族의 特性을 所謂 共產主義 革命理論과 金日成 唯一思想에 立脚한 教育을 通하여 「人間改造」를 達成 全體를 爲하여 自己를 犧牲할 수 있는 「革命의 戰士」를 多數養成한 것으로 認定할 수 밖에 없는 現段階에서 北韓 人民의 勤勉性, 勞動性向은 높은 水準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北韓의 人的 產業 動員能力

北韓의 人的 產業 動員能力은 北韓 總人口의 31.3%로 約 470 万名線으로 볼수 있다. 이中 200 万名은 婦女子들로서 이들은 製造業 部分에 45%, 農業部門에 6.0%라는 女性勞動者의 높은 就業率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이 勞動力 不足에 腐心하고 있음을 斷的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北韓은 不足한 勞動力을 補充하기 위하여 이미 在日僑胞를 1959年~1972年까지 總 90,442名 強制 北送시켜 充當하고 있으며 甚至於是 人民學生들까지 強制로 勞力 動員시키고 있는 形便이다. 最近에는 強制的이고 獨裁的인 勞力 動員의 限界를 痛感하고 勞働의 生産性을 提高시키기 爲해 技術革命을 提唱하고 있으며 全人民이 한가지以上の 技術을 習得하도록 體制化시키고 있다.

北韓의 技術者數는 1970年現在 49 万名이고 6個年計劃 最終年度인 1976년에는 100 万名을 目標로 하고 있어 實際的인 意味에 있어 많은 熟練勞動者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熟練勞動者는 軍需工業을 爲한 金屬工業, 機械工業 및 兵器生産과 關聯部門에 局限되는 것이며 그外에 余他工業部門의 製品은 도저히 國際輸出市場에서 競争을 할 수 없을 程度로 粗雜하며 自給自足の 形態로 國內 需要에 充當하는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다) 北韓의 人的軍事動員能力

北韓의 動員된 現存軍事力을 除外한 予備兵力의 動員能力은 總人口의 14%인 250萬으로 判斷하고 있다.

北韓의 予備兵力의 動員 및 訓練形態는 크게 3가지로 分類되고 있는바,

① 1959年 創設한 男子 18才~50才, 女子 18才~35才(單身女 및 未婚女) 1974年 現在 126萬名으로 推算되는 勞農赤衛隊와 23萬名의 教導隊를 들수 있다.

이들은 個人火器는 100%, 共用火器는 40~60% 支給, 武装되어 地域單位 및 企業所單位로 年間 500時間以上 訓練을 받고 있으며, 每年 最終訓練段階에서는 正規軍과 合同訓練까지 實施하고 있다. 이들의 有事時 動員能力은 M+3日에 約 40~42萬名을 動員, 20~24個師團(正規師團이 保有한 122mm以上 野砲나 탱크等 重武器는 없음)을 編成, 現役師團 合하여 開戰即時 50個師團을 戰線에 投入可能케 할 것이며, M+30日에는 勞農赤衛隊로만 50個 師團을 編成, 可能한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② 北韓이 1968年 「프예블로」 号事件 以後 正規軍의 後備役

으로養成하고 있는 붉은 靑年近衛隊는 中學校 3 學年의 14 才부터 17 才까지 出身成分 良好한 者中에서 70 萬名을 選拔, 勞農赤衛隊와 같이 年間 200-300 時間의 訓練을 實施하고 있는바, 이들의 上級 學年구름은 精神面이나, 組織的인 面에서 勞農赤衛隊보다 優秀한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③ 各種警備隊를 包含한 準軍事部隊 26,500 名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全人民武裝化路線에 따른 婦女子의 軍事訓練, 老人의 射擊訓練, 어린이 놀이 軍事體制化, 國防體育의 普遍化等에 依한 全人民의 戰鬪兵化 政策을 考慮할 때, 北韓의 軍事動員能力은 14% 250 萬名에 充分히 到達하는 것으로 判斷된다.

나) 北韓의 物的資源

物的 資源은 一般的으로 天然資源과 資本財(機械, 設備 및 原料等)로 区分할 수 있으나 戰略的인 見地에서 考察할때 農業資源, 鎂工業資源 및 軍需工業水準 등으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1) 農業部門

北韓 農土의 水利化 現況은 1970 年 總畝面積 70 萬町步를 完全水利化했다고 發表한 바 있으며, 總田面積 138 萬町步中 6 個年計劃期間에 30 萬町步를 水利化하겠다고 發表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發表는 休戰以後 極甚한 食糧難打開을 爲하여 人民을 強制動員하여 1 압록강 관개 공사(4 萬町步), 新義州 관개공사(1 萬 2 千町步) 를 비롯한 總灌溉水路 3 萬 km, 貯水池 759 個, 揚水場 7 千個 등을

設置한 것으로 보아 畚은 約 98% 까지 水利化한 것으로 判斷되고 있으며, 田의 水利化는 現在 推進中에 있어 約 15 万町步程度 水利化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農業의 機械化現況은 1970 年度 트랙터 (15 馬力) 41,000 臺로 1972 年 金日成이 指示한 100 町步當 3~4 臺 트랙터를 配當하자는 方針에 未達되고 있는 것이며, 北韓의 蛟陽트랙터工場이 金城트랙터工場으로 名稱을 變更 1973 年 7 月 26 日 年度 1 萬 3 千 臺에서 20,000 臺를 生産할 수 있는 施設의 大幅 擴張으로 1974 年에는 總 7 萬 臺水準을 保有한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北韓의 肥料生産은 年間 120 萬 噸으로 自給自足을 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1972 年 農産物 推定 生産量은 總 500 萬 噸으로 北韓은 1972 年 約 40 萬 噸의 食糧을 輸入한 것으로 分析되고 있으나 北韓은 1961 年부터 「統一 團田運動」으로 모든 協同農場은 管轄農土中 1-2 町步를 統一 田으로 耕作, 이곳에서의 所出은 全數 備蓄할 것을 決定, 戰時를 爲한 食糧을 備蓄하여 왔는바 1972 年 現在 北韓은 總 北韓人民의 5.5 個月分의 食糧인 250 萬 噸을 備蓄한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戰略的인 見地에서 農業資源의 重要性은 一國의 食糧生産量의 自給自足度에 달려 있는바, 北韓의 水準에서 볼 때, 豊足하지는 못하지만 北韓은 食糧을 自給自足하는 것으로 判斷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政治的 獨裁體制 및 經濟的 統制體制 속에서는 食糧需要를 金日成의 指令 하나로 調節시킬 수 있으며 後方의 人民

들에게는 기아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食糧配給으로 軍糧米의 確保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2) 鉉工業部門

解放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北韓이 推進해온 工業政策은 機械製作工業을 核心으로 하는 重工業優先 政策이었다. 日帝가 推進했던 南豐(北)工政策에 依해 北韓地域에 造成되었던 工業基礎을 土臺로 하여 機械工業을 發展 育成시킴으로서 機械의 自体製作 普及을 통한 人力不足現象의 解決을 試圖해온 北韓은 따라서 鉉業 및 金屬工業의 開發에 優先적으로 注力하였고 또한 各種 産業機械의 開發, 量産을 極力 追求해 왔다.

이러한 背景下에서 20年間 重點적으로 育成되어온 北韓의 重工業은 必然적으로 与他分野의 工業에 比해 相對적으로 越等히 앞질러 發展해 왔으며, 一部分野에서는 先進國 水準에 相當히 近接한 水準을 보여주기에 이르고 있는바, 本欄에서는 特히 軍需工業과 密接한 關聯을 맺고 있는 分野의 工業現況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鉉 業

熱源供給, 工業原料供給, 外貨獲得의 三大目標을 達成키 위해 休戰直後부터 北韓은 天然적으로 豊富한 地下資源의 探掘能力

증대에 拍車를 加해 왔으며 이로 因해 大型機械의 生産能力이 相当水準에 이르게 된바, 諸般 鑛業現況은 다음과 같다.

① 主要鑛物 埋藏量

鐵 : 30 億屯	石 炭 : 79 億屯
金·銀 : 6,000 屯	石灰石 : 2,000 万吨
銅 : 75,000 屯	滑 石 : 60 万吨
重石 : 232,000 屯	

② 鑛山 및 機械工場 現況

鑛山 : 169 個

炭鑛 : 103 個

鑛山機械工場 : 19 個

③ 生産量 (72 年)

石炭 : 3,358 万吨

銅 : 3 万吨

鐵鑛石 : 600 万吨

鉛 : 5.5 万吨

亜鉛 : 8 万吨

黒鉛 : 12 万吨

④ 生産 鉱山機械

○ 採암기 : 小型

○ 捲揚機, 岩石粉碎機

○ 25 吨 重畳車 : 엔진 400 馬力

○ 電氣牽引車 : 重畳 10 吨

○ 連続式 掘착機 : 2,500 名 代行能力

(+) 金属工業

50 年代 末부터 電氣炉에 依한 特殊鋼 生産을 實現해 온
北韓은 60 年代 中葉부터 高速度鋼, 炭素工具鋼, 超硬合金 등 機械
製作에 必要한 大部分의 合金鋼을 生産 및 輸出하고 있으며, 鉍砲
製作을 뒷받침할 引拔鋼管도 生産하고 있다.

① 製鉄, 製鋼所數

製鉄所 : 3 個所 製鋼所 : 3 個所

製線所 : 4 個所 其他 : 1.0 個所

② 鐵鋼生産量

鉄鉱石： 600万吨 銑鉄 및 粒鉄： 222万吨

鋼鉄： 243万吨 鋼材： 150万吨

③ 品質

代表的 特殊鋼인 高速度鋼의 品質分析 結果는 다음과 같다.

成分 品 種	C	Mn	Si	Cr	W	V	No	Ni	S	P
	最 大			最 大						
P 1 8	0.75	0.4	0.4	4.1	18.2	1.2	0.3	0.4	0.03	0.03
P 9	0.90	0.4	0.4	4.1	9.3	2.3	0.3	0.4	0.03	0.03
P 6 M 3	0.90	0.4	0.4	3.3	6.2	2.2	3.3		0.03	0.03
P 6 M 5	0.82	0.4	0.4	4.2	6.3	1.9	3.1		0.03	0.03

(評価) 熱処理後の 強度는 HRc 65 ~ 66 으로서 成分 및 品質이 日本工業規格에 合格함.

其他 特殊鋼도 一般的으로 日本工業規格에 合格하는 品質水準을 維持하고 있다.

(+) 機械工業

① 工作機械工業

北韓은 所謂 母機械라 불리우는 工作機械製造工業을 優先的으로 開發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특히 注目해야 할 分野로 抬頭되고 있다.

1950年代에 手動工作機械의 開發을 完了하고, 1960年代에 各種半自動工作機械의 開發을 完了하였으며, 1970年부터는 油壓模倣旋盤, 數值制御旋盤 등의 自動工作機械를 開發하여 自動工作機械時代에 突入하고 있으며 72年 1年間에 25,000 臺의 工作機械를 生産함으로써 質, 量, 兩面에서 一定基盤을 確保하고 있다.

㉞ 機種別 開發現況

- 旋盤 : S1 - 200 等 17 種
- 볼盤 : B1 - 32 等 6 種
- 研削盤 : M1 - 250 等 4 種
- 齒切盤 : Z1 - 10 等 3 種
- 밀링盤 : F1 - 250 等 6 種
- 形削盤 : P3 - 650 等 3 種

㉔ 品 質

○ 精 密 度 分 析

檢 査 項 目		測 定 者	許 容 者	判 定
1. 테이블上面의 眞直函	左右方向	0.01/㎜	0.06/㎜	○
	前後方向	0.01/㎜	0.06/㎜	○
2. 主軸의 흔들림		0.006	0.01	○
3. 主軸斷面의 흔들림		0.015	0.02	○
4. 테이블의 左右運動과 그 上面과의 平行度		0.06	0.03	×
5. 主軸頭의 活動과 테이블上面과의 直角度	左右方向	0.018	0.01	×
	前後方向	0.004	0.01	○
6. 테이블 上面과 테이블 上下運動과의 直角	左右方向	0.04	0.02	×
	前後方向	0.007	0.02	○
7. 테이블上面과 主軸 中心線과의 直角度	左右方向	0.008	0.02	○
	前後方向	0.005	0.02	○

○ 工作精度 検査

	檢 査 項 目	測 定 値	許 容 差
1	平 面 加 工 精 度	0.018	0.02
2	測 面 加 工 精 度	0.035	0.015

(評 価) 日 本 工 業 規 格 (J I S) 에 66.7 % 合 格

또한 6,000 屯 푸레스, 6 m 호빙盤, 12-m 푸레나, 8 m 타닝盤, 400 mm 平削보링盤과 같은 超大型工作機械를 開發 및 保有하고 있음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② 大型産業機械 製造能力

北韓이 機械工業을 優先的으로 推進해온 理由가 産業을 機械化함으로써 人力不足의 短點을 解消시키기 위한 目的인바, 이를 위해서는 大型機械가 보다 能率的인므로 各種大型機械의 開發을 追求해 왔는데 그 現況은 다음과 같다.

○ 部門別 大型機械 生産実績

內 燃 機 関	2,000 馬力
掘 削 機	4 m ³ (바켓의 容量)
連 續 式 掘 削 機	2,500 人 代 行 能 力

自 動 車	25 屯 積載能力
變 圧 器	10KVA 容量
電氣機関車	4,320 馬力
불 도 저	300 馬力, 鉄製無限軌道
塔式起重機	75 屯級
貨 車	63 屯級

그러나 上記 大型機械들을 試製品을 開發한 段階로서 아직 量産体制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全般的으로 品質도 粗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精密加工能力

比較的 높은 精密度를 要求하는 工作機械의 加工이 先進國水準에 接近하고 또 「로기스」와 같은 工業用 精密尺을 量産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精密加工能力 一切를 否定할 수는 없으나, 生産된 一般機械 大部分의 精密度가 낮으며, 또한 計器類의 生産이 全無한 것은 精密工業이 工業全般에 一般化되지 못하고 있음을 証明한다. 따라서 現時点에서 各種 計器類의 製作可能性은 認定할 수 없다.

④ 自動車工業

北韓은 勝利自動車綜合工場을 中心으로 自動車工業의 一元化를 期하고, 6個年 計劃期間(71~76)中에 이를 三大基幹製

品으로 決定하는 등 自動車の 劃期的 増産을 圖謀하고 있으나 그 実績은 不振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勝利58号」 「自主号(10吨級)」 「更生号(짚차)」 등 5~6種에 걸쳐 年間 約 11,000 台를 生産하고 있으나 性能이 낮다. 機械工業, 電氣工業, 化學工業 등 工業全分野의 뒷받침을 必要로 하며 同時에 都合 20,000 余個의 附屬品을 要하는 自動車の 生産은 北韓의 工業能力上 가장 脆弱分野로 指摘되고 있으며, 또한 北韓도 自動車生産設備만은 日本 등의 先進國으로 부터 導入을 推進하고 있다.

現在 電製品, 氣化器 등 精密部品, 타이어 등 化學製品은 輸入하여 自動車を 生産하고 있다.

⑤ 트랙터工業

農業分野의 人力이 特히 不足한 北韓은 이를 打開키 위해 트랙터의 開發 및 量産에 일찍부터 注力해 왔으며 이에 따라 오늘날 어느 程度 體系화된 트랙터生産體制를 構築하게 되었음은 特記할 만한 事實이다. 고무바퀴式의 農用트랙터 뿐 아니라 鐵製無限軌道트랙터를 量産하고 있음은 軍事的인 側面에서 分析해 볼때 重要な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 하겠다. 卽 現在 生産中인 75馬力 豐年号 트랙터는 裝甲車의 要素를 모두 包含하고 있는바, 이의 量産은 곧 有事時 裝甲車를 豐産할 수 있는 能力이 있음을 証明하는 것으로서 北韓 軍需工業力 評價에 있어서 留意해야 할 것이다. 1973年 7月 北韓은 이와같은 트랙터를 量産할 수 있는 트랙터工場을 新設, 操業을 開始한 바, 그 重要

姓에 비추어 이에 대해 略述하기로 한다.

○ 「金星」트랙터工場

北韓은 76년에는 年間 21,000台的 트랙터를 生産하기로 目標을 設定한 바, 從前 岐陽트랙터工場의 前近代的인 施設로는 이의 達成이 거의 無望한 突情이 있으므로 最近에 새로운 大規模工場을 新設하고 岐陽트랙터工場을 併合하여 金星트랙터工場을 建設했다. 北韓全域의 機械工業力량이 總集中되어 比較的 大規模, 現代的으로 建設된 本工場은 自体生産된 工作機械 및 自体設計製作된 自動化施設로 建設되어 鉄製無限軌道트랙터의 量産을 뒷받침하고 있다. 同工場은 各機械를 独立的으로 設置하여 他製 製品 生産工場으로의 即時轉換이 可能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是는 戰時에 裝甲車 生産工場으로의 轉換可能性이 큼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 電力工業

北韓의 電力政策은 水火力發電所를 併行하여 建設하며 小容量 水火力發電所도 兼하여 建設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70,71年の 發電力은 各各 280 및 310 万kw에 達하고 있다. 發電所의 數는 1万kw 以上이 25個, 그 未滿이 2,177 個所이다.

1970,71年の 生産電力량은 1.65 億 및 180 億 KWH이며 1971年の 1人當 電力량은 1,270 kw H이다. 한편 1976年度の 發電力은 500 kw, 生産電力량은 280 ~ 300 億 KWH 를 計劃하고

있다.

(마) 造船工業

北韓의 造船工業은 水産業의 發達과 艦艇建造를 通해서 發展해 왔으며 現在鋼船建造造船所는 東海岸에 淸津造船所를 비롯하여 6個所, 西海岸에 南浦造船所를 爲始하여 4個所가 있고 造船修理 및 木船建造 造船所는 東西海岸 通털어 20余個所가 있다.

現在 建造할 수 있는 船舶의 크기는 一般船舶은 排水量 5,000 屯級, 艦艇은 2,000 屯級이며 年間建造能力은 約 14 万屯으로 推定되나 実績은 1/3 에 未達되고 있다.

南浦와 羅津造船所에서 各各 2,000 屯級 護衛구축함 1隻씩을 建造된것으로 判斷되고 있으며 大型船舶의 建造能力은 없으나 中小型船舶의 建造能力은 韓國과 比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바) 石油化学工業

過去 北韓의 化学工業政策이 內資源을 基礎로 한 獨創的 技術開發에 力點을 두어 왔음으로 해서 石油化学工業은 相對的으로 매우 落後되었 으며, 近來에 이르러 石油化学工業의 開發을 試圖하고 있는 基礎段階에 不過하다.

73年9월에 北韓 最初의 雄基原油加工 工場이 一部 操業을 開始하여 石油精製品을 生産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以前에는 需要量의 거의 全部를 소畊으로부터 導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70年以前의 年間 油類 導入量 및 雄基精油工場의 製品別 生産推定量은 다음과 같다.

① 年間 対蘇 油類 導入量

1961 年	344,500 吨
1962,63 年	350,000 吨 (推)
1964 年	347,000 吨
1965 年	391,800 吨
1966 年	383,900 吨
1967 年	446,300 吨
1968 年	713,600 吨
1969 年	770,000 吨
1970 年	838,300 吨

② 雄基精油工場の生産能力(推定)

(年間200万吨 処理能力)

品名	生産量(바렌/日)	品名	生産量(바렌/日)
重質重油	101	輕質重油	2,283
重質重油 A	101	重質重油	169
重質重油	846	重質重油	296
방카 - C	1,987	방카 - C	7,227
아스팔트	68	아스팔트	127
其他(燃料)	254	其他(燃料)	740
其他(燃料)	594		

(3) 軍需工業水準

花崗石 軍需工場은 兵器工場, 一般軍需工場, 戰時轉換準備

完了工場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58 個工場으로서

이 중 兵器工場이 20 個, 戰時轉換準備完了

工場이 26 個이며 이외에도 數未詳의 軍需工場이 있는 것으로 推

定된다.

軍需工場 分布現況을 살펴보면, 江界地域一円에 兵器工場의 50%

의 10 個工場이 密集되어 있으며 平南 德川郡과 咸北 元성군에 各

各 1 個工場이 있다.

戰時轉換準備完了工場은 平安南道에 9 個工場, 平北과 慈江道 寧

양시에 各各 3 個工場, 咸鏡北道, 江原道 함흥시에 各各 2 個工場 그리고 咸興市에 1 個工場이 있고 咸鏡南道 1 個工場이 있다. 生産品別로 살펴보면, 手榴彈 및 地雷工場이 11 個所, 迫撃砲工場이 4 個所, 小銃工場이 5 個所, SMG 生産工場이 6 個所, 火藥工場이 2 個所, 그리고 各種 砲彈 및 突彈生産工場이 13 個所이다.

北韓의 代表的 小銃은 58 型 AK 小銃인바 1958 年 以来의 年間 生産 推定量은 다음 表와 같다.

北韓 58 型 小銃 生産 実績

(單位:挺)

生産年度	表示符号	年間生産量	累計生産量	備考
1958	ㅇ ㅁ	33,920	33,920	
1959	ㅇ ㄱ	105,564	139,484	
1960	ㄹ ㅅ	62,736	202,220	
1961	ㄹ ㅇ	143,004	345,224	
1962	ㄹ ㄴ	193,968	539,192	
1963	ㄹ ㄷ	133,504	672,596	
1964	ㄹ ㅌ	74,844	747,440	
1965	ㄹ ㅍ	72,144	819,584	
1966	ㄹ ㄷ	18,036	837,620	
1967	ㄹ ㅈ	-	837,620	
1968	ㄹ ㅊ	33,126	870,836	

이 밖에 慈江道 前川郡에 位置한 81号 兵器工場에서 1959年이나 1960年初에 82mm 無反動銃과 40mm 對戰車척탄發射器를 生産하기 始作했으며 1960年 7月까지는 9,999挺을 生産하였으며 1961年3月까지에는 10,687挺을 生産하였다.

이외에 北韓은 口徑 100mm 内外의 野砲등을 生産할 能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4) 北韓의 最近 行政能力

北韓은 最近 独立的 南侵戰爭 遂行 能力 強化의 一環으로 行政能力 向上을 爲한 다음 事項의 措置를 取하였다.

첫째 北韓은 1972年 12月 27日을 期하여 憲法을 改正, 金日成에게 國家主權을 代表하는 主席뿐만아니라 國家政策을 監督하는 黨, 政府의 聯合體인 中央人民委員會 그리고 全般的 軍事力을 掌握하는 國防委員會委員長職을 賦與함으로써 一人獨體制를 確立시켰다.

둘째는, 1973年 9月初 2週間에 걸쳐 黨5期 7次 全會會議를 通하여,

① 思想, 技術, 文化의 이른바 三大革命을 強力히 推進하여 物質的, 思想的 要塞를 早速히 占領할 것

② 潜在的 抵抗要素가 되는 對內敵對勢力 및 反革命的인 思想 잔재를 一掃할 것

③ 統一을 不願하는 韓國의 分裂主義者와의 非妥協的 鬭爭과 南韓內 革命勢力의 反政府鬭爭을 積極 支援할 것 등을 骨子로 하는 重要 課業을 強力히 示達하였다.

셋째는,北韓은 戰時 生産을 持續시키기 爲하여 地域單位 經濟 自給體制을 強化시키고 있는데 그內容은 다음과 같다.

郡內 中小企業所를 增設, 生産統制體制을 強化시키고 있으며 모든 郡에 生活必需品工場, 農機修理工場等 10個以上으로 增設시킬것과 原料自給度를 50~60%까지 높이는 課業을 遂行하고 있다.

넷째는,北韓의 戰略物資 自給能力을 強化시키고 있다. 1973年 7月에 岐陽트랙터工場의 生産施設을 2倍로 擴張하여 金星트랙터工場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有事時 裝甲車로 運用할 수 있는 鐵製 無限軌道 트랙터의 量産을 기하고 있다.

또한 戰略物資의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는 油類問題에 있어서도 操業을 開始한 雄基의 精油施設을 擴張中에 있어 당사 分解工場을 爲始한 石油化學系列 工場이 完成되면 揮發油를 包含한 諸般 油類는 勿論 爆藥의 原料인 「톨루엔」의 自体供給도 可能視된다.

다섯째,北韓은 戰時를 對備한 非常通信體制 維持를 爲해 行政 通信網 訓練을 強化하고 있음을 注目해야 할 事項들이다.

4. 우리의 對備策

가. 戰爭 勝敗의 要因

Alexander 大王으로부터 第4次 中東戰에 이르기 까지 人類가 展開해온 數 많은 戰爭에서 勝敗의 要因이 되었던 것은 戰略의 主된 原則인 機動, 集中 및 奇襲等이었다는 事實은 變化되지 않았다.

그러나 嚴密하게 모든 戰爭樣相을 分析하여 볼 때 時代的 變遷에 따라 勝敗의 要因에는 變化가 있었음을 發見할 수 있다.

産業革命의 餘波가 戰爭에 導入되기 以前과 以後의 差異가 뚜렷하고 第2大戰 以前과 그 以後에는 確實히 區別되고 있다. 卽 産業革命以前에 勝敗를 左右한 要因은

① 將軍의 指揮能力

② 量的 人力

③ 射擊과 地形을 利用한 機動 등이 中心이 되었다.

同 時代의 名將들은 戰場에서 그들나름대로 戰略을 잘 設定하고 敵의 背後에 不意에 機動함으로써 戰爭을 勝利로 이끌수 있었다.

이 當時에는 機動方式과 兵力의 效率的 運用 (economy of forces) 을 優秀하게 展開시킬 수 있는 側에서 勝利할 수 있었다.

이 當時의 兵力 集中의 樣相은 Napoleon 戰爭當時의 散開隊形에서 까지도 決定的 時期에 決定的 場所에 兵力의 數的 優位를 確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機動方式과 兵力의 集中은 그 重要性이 強調되었고 地

形的要素에 대한 正確한 判斷에 따른 敵의 側方 및 後方으로 迂回機動을 通하여 優勢한 兵力集中을 먼저 達成하는 側이 戰勝을 期할 수 있었다.

그러나 産業革命의 余波가 戰爭에 導入되면서 Harvey A. Deweerd의 見解와 같이,

- ① 戰爭의 機械化
- ② 軍隊의 大規模化
- ③ 國民皆兵制度
- ④ 戰爭努力의 國民化 등이 促進되었다.

그리하여 最初의 現代的 總力戰인 美國의 南北戰爭에서는 産業力量 (Industrial potential) 이 戰爭 勝敗를 左右하였다. 産業革命以後 繼續된 經濟能力 및 科學技術의 劃期的 發展은 武器體系와 裝備體系의 高度化를 가져왔고 戰勝의 要因은,

- ① 武器體系 (Weapon System)
- ② 支援體系 (Supply System)
- ③ 人 力 (Manpower)

이와같은 樣相은 第2次 世界大戰의 엄청난 物量戰과 消耗戰의 形態로 經濟的 優位 (Economic Superiority) 가 戰勝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그러나 孫子は 그의 「兵書」에서 戰爭의 常法으로 國事を 常經으로 七計를 들고 있다.

國事는 道, 天, 地, 將, 法이고 七計는 主孰有道, 將孰有能, 天地孰

得, 法令執行, 民衆孰強, 賞罰孰明이다.

孫子は 여기서 무엇보다도 精神力을 強調하고 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仏蘭西의 포쉬 (Foch) 將軍은 「自己 自身이 敗하였다고 生覺하는 戰鬪가 곧 敗戰이다. 왜냐하면 物質的으로 敗戰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敗戰이란 士氣上으로만 있을 수 있다」고 했으며, 「勝利=意志」 「戰爭=士氣의 領域」이라고 간파한 바 있다.

Napoleon도 「戰爭에서 士氣와 物質의 比重은 3對1이라」는 名言을 남기고 있다.

最近에 와서 精神力의 重要性은 越南戰과 中東戰에서 다시 한번 強調되고 있다.

結論的으로 오늘날의 戰爭勝敗의 要因은 物質力과 精神力이 똑같이 強調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現代의에서의 戰勝의 要因은 國家의 經濟戰力의 強化에 基盤을 둔 精神戰力의 確立속에서 以上の 諸戰力을 有効適切하게 結合할 수 있는 政治戰力의 優劣에 많은 比重이 賦與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條件속에서 如何한 敵도 擊滅할 수 있는 軍事戰力이 培養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精神戰力, 經濟戰力, 政治戰力 및 軍事戰力은 獨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相互 補完的인 性格을 갖고 있으며 戰勝을 期하려는 側은 이를 均衡있게 發展시키므로써 自身の 生存을 威脅하는 如何한 敵의 攻撃으로 부터 自己를 防護할 수 있다.

나. 精神戰力 強化方案

戰略의 目的은 奇襲的인 攻擊과 迅速한 機動을 통한 敵國民과 軍隊의 抵抗意志를 破壞하는 것이다. 戰略인 虛點에 對한 無慈悲한 攻擊을 通하여 敵國民과 軍隊를 心理的 混亂속에 빠지도록 總力을 傾注하게 된다.

前線에 配置된 軍隊에게는 機甲部隊나 特攻隊에 依한 後方 및 側面이 威脅받을때 心理的 混亂이 造成될 것이며, 後方 國民들에게 新銳戰爆機와 特攻隊에 依한 攻擊으로 混亂이 誘發될 것이다.

이와같은 危機를 當할 경우 國家動員令이 發令되고 戰列을 갖추고 反擊態勢에 들어 감으로서 비로소 守勢에서 攻勢로 轉換, 敵의 突出된 攻擊部隊를 各個 擊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응조치과정은 國民과 軍隊의 抵抗意志가 強하면 強할 수록 더 短縮되는 것이며 따라서 被害 또한 減少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敵의 攻擊部隊를 殲滅시켜 戰勝을 期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平時에 造成된 國民의 士氣는 戰時動員의 速度를 決定하고 平時에 強化된 精神戰力은 諸戰力의 內部的 礎基로서 戰時에 諸戰力의 強度를 決定하게 된다.

平時에 國民의 理念的 總和가 이루어 지지 않고 戰爭 動機를 納得하지 못하며 抵抗의 名分과 犧牲의 敢鬪精神이 確立되어 있지 않다면, 有事時의 動員의 速度는 느릴 것이며 動員된 諸戰力의 強度는 보잘것없는 것이 될 憂慮가 濃厚하게 됨으로 攻擊은 더욱 擴大될 可能性이 크며 이를 擊破할 對應策도 막대한 人命損失과

희생을 각오해야 될지 모른다.

韓國은 自由民主主義國家이며 國民은 自由民임을 自負하고 있다.

北韓은 共產主義 獨裁國家요, 그들의 人民은 奴隸狀態에 処하여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우리 國民에게 故意와 抵抗意志를 造成시켜 주고 犧牲的 敢鬪精神을 注入시키는 것은 事實上 至難事는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歷史는 우리들에게 모든 自由民은 自己들의 自由, 平等, 人間의 尊嚴性이 威脅받고 剝奪될 危機에 処해서는 모두가 自發的으로 銃을 들고 끝없는 抗爭을 通하여 最後의 勝利를 達成했음을 教訓으로 주고 있기 때문이다. 自由民은 本能的으로 自由, 平等, 個人의 尊嚴性을 自己의 生命보다 貴하게 여겨왔다.

韓國의 政治指導層은 國民이 自由民의 自負心을 갖도록 指導하는 것이 第一義的 課業인 것이다.

万若 北韓의 組織的이고 暴力的, 政治的 政治攻勢의 威脅속에서 國防態勢를 向上시키기 爲하여 國民의 一部 自由를 留保시킬 경우에는 이와같은 一聯의 措置에 對하여 반드시 國民이 納得할 수 있는 說得과 解明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國民은 自身의 自由의 一部가 留保된 動機와 그 妥當性에 對하여 疑心을 하기 始作하면 政府를 不信하게 될 可能性이 크며, 自己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失望 및 좌절감속에서 受動的이고 無氣力한 精神姿態에 處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自由民의 衿持와 自負心을 잃게 된다면 有事時 自身의 自由, 平

等, 個人的 尊嚴性이 威脅받게 될지라도 生命을 버리고 防衛해야 할 실질적인 名分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우려가 있음으로서 精神戰力의 強化란 豫상외로 期待하기 어렵게 될런지도 모른다.

經濟的인 側面을 考慮해 볼때 開發途上國인 韓國의 立場에서 劃期的인 經濟開發 및 集中的인 工業投資로 早速히 中進國 및 先進國 隊列에 到達하기 爲하여 全國民은 節約, 儉素, 耐乏으로 모든 難關을 克服, 過渡期的인 現期間을 早速히 끝내고 國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고 國家의 經濟的 基盤을 早速히 強化하겠다는 國家의 經濟開發目標에 대하여 國民이 完全히 믿지 못하고 万若 「있는 者」와 「없는 者」의 格差가 漸漸 커지며 「있는 者」는 社會的 使命感이 없이 自身の 財貨를 浪費, 奢侈스러운 生活를 營爲하며 「없는 者」는 結局 「없는 者」의 処地를 벗어 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個人的이고 主觀的인 悲觀的 判斷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精神戰力強化에 對한 큰 障礙要素가 아닐 수 없다.

國家는 國民의 一部가 이러한 思考에 빠지지 않도록 最近 獲得한 經濟的 發展結果가 直接 國民各者에게 돌아 간다는 實證을 보이기 爲하여 실질적 國民福祉政策을 樹立, 年次的으로 執行해야 할 것이다. 現時點에서 國民에게 가장 呼訴力이 빠른 福祉政策으로는 醫療制度의 改善等을 例示할 수 있을 것이다.

內資動員이 問題되고 있는 現時點에서는 勿論 이러한 구체적 國民福祉를 위해서는 財政負擔 能力이 問題가 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政治, 軍事的 威脅이 漸增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敵의 挑發

에 抑制力이 되는 가장 重要한 것은 全國民의 團結된 態勢라고 評價해 볼 때, 精神的인 國民의 團結을 促進시키기 爲한 政治的 解決方案의 일환인 國家의 醫療制度 改善에 가장 큰 效果를 얻게 될 것이다. 5年乃至 10年 計劃을 樹立, 年次的으로 遂行해 나가야 하며 財源捻出이 困難하면 外國借款이라도 導入, 同制度의 改善을 遂行하여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있는 者」라는 理由로 醫療惠沢을 받을 수 없는 體制속에서 國民의 總和가 達成되기 困難하며 자칫 잘못하면 北韓의 醫療制度 등의 “福祉制度”(?)에 無意識中에 관심을 갖게 될 위험성마저 完全 抑除할 수는 없음을 直視해야 할 것이다.

다. 經濟戰力の 強化方案

現代戰이 國家總力戰 및 物量戰의 樣相을 보이므로서 一國의 産業能力 및 經濟的 能力은 戰爭勝敗의 要因으로 登場하고 있다.

現代戰爭에서 武器體系 및 支援體系는 오히려 兵力보다 重要視되고 있으며 武器體系의 競爭的 科學化는 國家財政의 莫大한 負擔을 要求하게 되었다.

經濟戰力은 戰時에 前方部隊에서 要求하는 諸般 軍需品을 適時에 供給하고 後方地域의 國民들이 最低生活를 維持하면서 抵抗意志를 잃지 않도록 物資的 保障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戰力の 強化方案에서는 一國의 全般的 産業能力이 考察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範圍를 縮小, 經濟戰力을 強化함에 있어서 第一 弱점이

되고 있는 戰略的 問題를 經濟的 側面에서 分析할 것이다.

첫째, 韓國의 首都 서울은 軍事分界線에서 敵의 MIG 戰鬪機가 不過 數分만에 공격할 수 있는 距離內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에는 全人口의 $\frac{1}{5}$ 程度가 集中되어 있으며 經濟活動의 中心地로서 모든 韓國 産業施設의 中樞的 機關이 이곳에 集結되어 있다.

그러나 現代戰은 速戰速決의 原則에 따른 電擊戰의 形態로 發達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特히, 北韓의 軍事的 企圖는 奇襲攻塚의 形態로 計劃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되고 있음은 注目할 點이라고 본다. 즉, 産業施設 中樞機關의 集中은 敵에게 攻塚目標을 提供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敵에게 決定的인 目標을 提供하게 됨은 곧, 我側의 戰略的 虛點을 노정하는 結果가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經濟戰力을 強化시키는 見地에서, 또한 敵에게 目標을 選定하는데 混亂을 주기 위하여 可能的 範圍內에서 各種 施設을 全國의으로 分散시킴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措置는 中小都市의 發展이라는 附隨效果도 있게 될 것이며, 現在 推進中인 새마을事業에 活力素 役割도 부여케 될 것임으로 國策的인 事業으로 立法措置를 根柢로 早速히 推進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平時의 生産水準을 有事時에도 繼續 維持할 수 있는 對策이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工業原料의 많은 部分이 外國輸入에 依存하고 있고 國內生産原料의 國內活用도가 低調한 現 産業構造속에서 諸般 工業原料의 自給自足도가 比較的 낮다는 問題는

我側에 큰 弱點이 되고 있음은 否認 못할 事實이다. 그러므로 非常時를 對備한 原料 需給對策이 樹立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國內原料의 積極의 開發로 自給自足度를 早速히 向上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戰時生産을 措統시키기 爲한 産業施設自體의 防護對策과 관련, 有事時의 敵의 空中 및 地下地雷라 攻擊에 對備한 各 産業 施設 自體 防禦對策은 勿論, 平時에 꾸준하게 對備策을 點檢, 向上시켜 如何한 事態에도 生産을 持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對策에는 戰場予備軍의 訓練 強化 및 産業施設에 對한 空中防護對策이 包含되며 戰場에 浸透되었던가 또는 浸透할 우려가 있는 敵프락치의 怠業活動을 封鎖시키는 對策等도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산업시설요원에 대한 정보기관의 비공식 신원조회등이 수시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라. 政治戰力의 強化方案

政治戰力이란 國力の 諸要素를 戰力化하는데 最終的이고 決定的 役割을 担当하는 것이며 思想, 經濟, 軍事戰力を 結合하여 政治目的을 達成하는 能力을 말한다.

政治戰力を 強化시키기 爲해서는 첫째, 不正腐敗의 根絶을 들 수 있다. 政治的 不正腐敗는 政治戰力を 弱화시키는 第一 무서운 內部的 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公務員의 腐敗가 발생한다면 이는 國民의 不信을 誘發시키며 國民의 政治的 參與意識을

減少시키게 되므로서 国力의 諸要素를 結合시키는데 큰 障礙要素가 될 우려성이 있다. 効率的인 감사, 실질적인 감사(간부급대상)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民族主体勢力을 自負하는 新進 "엘리트"를 政治, 行政 諸分野에 大舉 起用하는 方案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經濟와 國防을 効率的으로 改編, 確立시키는 장기적 안목에서 國家 施策을 推進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南北對結過程에 核요원으로 양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勿論 現在의 公務員들도 國家 發展을 爲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一部 無事安逸主義나 怠性에 빠진 部類가 있다면 果敢한 手術을 實施하여 信念에 찬 참신한 新進 에리트들에게 일할 수 있는 機會와 與件을 賦與해야 할 것이다.

마. 軍事戰力의 強化方案

我側의 軍事戰力을 強化시키는 方案은,

첫째, 軍事戰略의 再定立

둘째, 軍事制度의 効率化

셋째, 軍事訓練의 効率的 強化

넷째, 武器體系의 現代化

다섯째, 支援體系의 組織化 등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의 軍事戰略은 現在 韓·美 防衛條約에 依拋한 集團安 保體制內에서 美國의 極東政策에 많은 影響을 받아 왔으며, 이와

같은 美國 軍事戰略과의 相互 協調體制는 諸般 條件上 不可避한 狀況이었으나 美軍의 韓國 駐屯이 無限定 繼續될 수는 없고 韓國 防衛問題를 언제까지나 美國의 責任하에 둘 수는 없다는 論理가 支配的이라면, 早晚間 韓國은 自主國防體制를 達成하여 韓國防衛問題를 韓國 스스로 解決해야 할 時期가 到來될 것이 予見되고 있다.

獨立的으로 國防問題를 論議해야 할 狀況에 処함에 있어 이를 忌避하거나 消極的인 態度를 보인다면 國家將來를 爲하여 憂慮되지 않을 수 없다. 韓半島의 分斷은 日本의 帝國主義 植民政策과 世界列強의 世界分轄競争에 基因한 第2次 世界戰爭의 所産이었고 韓民族의 意思는 全혀 考慮됨이 없이 賦與되었다. 그러나 第27次 유엔總會에서 決定된 韓國問題에 對한 決議事項은 「韓國問題는 韓民族 스스로 解決할 것」을 原則視하는 「아이러니」를 보였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對内外 狀況要因에 구애됨을 우려하기에 앞서서 가용한 최적의 韓國적 戰略概念을 정립해야 할 중대시점에 있다.

韓國으로서 取해야 할 自主的 軍事戰略思想은 現在 美·蘇·中 3強이 採択하고 있는 柔軟反應戰略 (Flexible Responsible Strategy) 을 적절하게 運用하여 韓國적인 戰略으로 土着化시켜 나가야 한다. 即 敵의 攻擊樣相이 政治工作戰術이던 國民의 思想團結을 期하고 自由民主主義制度의 優越性을 武器로 이를 擊退시켜야 할 것이며, 敵의 攻擊이 게릴라戰術이라면 國民總和의 基盤속에서 正規軍水準으로 戰力化된 郷土予備軍을 主軸으로 이를 擊滅시켜야

할 것이며, 敵의 攻擊이 電擊戰과 革命戰爭의 樣相을 띠다면 自由 友邦의 支援下에 國民 總力戰으로 이를 擊滅할 수 있는 方案을 수립하는 것이다. 비록 南北會談의 進展으로 軍縮이 南北雙方間에 合意된다 하더라도 予備軍制度의 強化와 國家非常動員體制의 確立으로 항상 敵보다 優勢한 潛在軍事力을 堅持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정규군의 숫자개념이 아닌) 敵보다 優勢한 軍事力 維持만이 韓半島內에서 戰爭을 事前 抑制할 수 있는 唯一한 手段임을 明確하다.

結論적으로 敵의 多様な 對南赤化戰術에는 柔軟反應戰略으로 對処하며 敵보다 優勢한 軍事力 確保로 平和的인 對峙狀態를 持續, 敵의 弱점을 捕捉, 이를 我側에 有利하게 活用하여 祖國의 統一을 段階적으로 達成시키는 “平和+武力”의 혼합형인 戰略을 定立해야 할 것이다.

둘째, 軍事制度의 効率化를 期하기 爲하여 韓國은 今後 予想되는 美側의 要請에 따른 軍援移管問題 및 南北 軍縮協議에 따른 相互減軍問題까지도 考慮한 軍事制度를 創案해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美側의 要請으로 軍援移管이 繼續 推進된다면 韓國의 經濟能力上 國民의 租稅負擔이 過重化되어 國民의 生産活動을 위축시킬 可能性이 濃厚하다. 또한 休戰協定の 代置될 南北間의 平和協定에 依하여 南北間의 相互減軍問題가 實現된다. 하더라도 食糧을 日常化하고 있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威脅이 除去된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으며 軍縮 및 相互減軍의 事態속에서도 我側이 繼續, 軍事的 優位를

占할 수 있는 効率的인 軍事制度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問題를 假定하고 또한 韓國軍의 効率化를 達成하는 方案을 考慮할 때, 가장 適切한 措置로서 三軍의 統合案을 提起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三軍의 統合目的을 人員과 予算을 節約시키기 위하여 三軍을 統合, 各軍種의 肥大化한 指揮部隊 및 支援部隊를 統合시켜, 予算을 節減시키고 殘余人員을 戰鬪兵化하자는 것이다.

또한 三軍을 統合함으로써 三軍의 合同作戰體制를 強化시키는 副次的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利點도 있다.

그러나 統合을 前後한 副作用을 考慮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充分한 事前 檢討없이 急激하고 無謀한 統合을 現時點에서 實施한다면 이는 反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諸般 條件이 三軍을 統合하여 人員과 予算을 節減시켜야 하며 予備軍訓練 및 動員體系의 確立을 指向해야 할 事態가 予見됨으로서 이에 대한 綿밀한 研究점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長期的인 對策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戰鬪力은 繼續 向上시킬 수 있으며 軍事的 優位를 繼續 占할 수 있는 條件속에서 予算을 節減시키고 兵力을 節約할 수 있는 軍事制度가 創案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相互 矛盾되는 課業을 遂行해야 하는 理由는 今後 予想되는 北韓의 對南政治工作戰術이 現在の 休戰協定을 代置할 平和協定 締結과 同時에 韓國의 動員된 軍事力을 弱화시키기 爲한 戰術, 즉 相互減軍을 더욱 積極적으로 提議하고 나올 것이 明若觀火

하기 때문이다.

셋째, 軍事訓練의 強化方案인데 現在 韓國의 軍事訓練은 將來 予想되는 戰爭樣相과 많은 距離感이 있는것 같다. 卽 今後 予想되는 戰爭形態는 電擊戰과 革命戰爭이 두엇함에도 韓國內 諸般 軍事訓練은 大體로 在來式 國民戰을 想像하여 訓練을 하고 있는 感이 없지 않다. 換言하면 탱크部隊, 新銳戰鬪機, 코만토포의 特攻隊가 將來 敵의 攻擊主力을 形成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이에 對한 防禦訓練 乃至 攻擊轉換訓練은 미약상태라고 본다.

예를 들면 6.25 戰爭時의 攻擊形態에 適合한 在來式 戰術로 訓練시키고 있다. 탱크를 擊破시키는 在來式 方法에는 3.5 인치 로켓砲, 57 mm 無反動砲, 105 mm 鉄甲彈에 依한 直接射擊을 들 수 있는데 實際에 있어서 對戰車破壞訓練보다 密集步兵部隊에 對한 射擊訓練에 重點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最近 北韓은 對戰車 미사일等 최신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將次的 戰爭에서는 敵의 特攻隊 및 輕步兵部隊의 活動이 戰鬪에서 큰 比重을 占하게 될 것이며 이들은 我軍의 前方보다 後方 및 側方에서 活動이 主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現在 우리의 訓練 形態는 戰鬪에서 前方攻擊위주의 在來式 國民戰에 主力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다.

또한 革命戰爭의 戰略은 大衆에 對한 政治活動과 軍事活動이 統合せ된 戰術임을 감안할 때 國軍 및 國民에 對한 政訓活動이 크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敵의 新種戰鬪機의 無差別한 攻擊을 予想, 이에 대한 防禦 訓練은 小火器, 共用火器에 依한 對空射擊程度를 증가하여 미사일 방어체계 형성을 위해 努力해야 할 것이다. 특히, 北傀軍은 지난 6.25 戰爭時 我軍 및 유엔軍이 夜間戰鬪에 熟達이 안된 것으로 分析 그들의 訓練의 30~40% 以上을 夜間戰鬪, 山岳戰, 坑道戰에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韓國軍은 晝間戰鬪訓練에 못지않게 夜間戰鬪訓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모든 結果에 對한 評價는 現在에는 尊出될 수 없으나 지난 6.25 戰爭時 敵의 機甲戰術에 對하여 韓國軍은 練兵場에서 制式訓練 爲主의 訓練의 結果가 얼마나 비참한 敗北를 안겨주었던 가를 想起한다면 次後 우리 的 訓練改善方向을 쉽게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빛쬤, 武器體系의 現代化 方案인데 現在의 武器體系가 全部 美側에 依存되어 있다는 것은 今後, 自主國防態勢 確立에 많은 隘路가 예상된다. 防禦産業의 育成은 하루아침에 達成할 수는 없고, 한편 韓國軍 現代化計劃이 早速히 達成된다는 確實한 保障도 없다. 이를 打開하는 길은 短期對策으로는 對美軍事外交, 政治接觸으로 美側으로 부터 韓國軍 現代化 計劃을 早速 履行하도록 하고 長期對策으로는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總力을 傾注하면서 이를 土台로 防禦産業을 育成하고, 現在의 미약한 國防科學研究機構를 効率的으로 改編하여 實際로 韓國 國防 科學에 寄與할 優秀한 國內學者 및 科學者를 總網羅하여 現代科學兵器를 自体生産할 수 있는 體制 確立

과 이에 대한 뚜렷한 計劃이 早速히 達成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支援体系의 組織化인데 現在 韓國軍의 支援体系는 武器体系와 마찬가지로 美國에 많이 依存되어 있다. 앞으로 美國은 軍援移管問題를 들고 韓國의 軍事費負擔을 增加시킬 것을 要求할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立場은 經濟的인 側面에서나 國際政治的인 觀點에서 볼 때 韓國軍의 軍事費를 自體로 調達할 수는 없는 形便이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早速한 履行을 遲延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間隔속에서 韓國軍의 支援体系는 弱化될 可能性이 있다.

支援力量은 優勢한 戰鬪力을 確保하는데 關鍵이 된다.

韓國政府側에서는 自主國防體制의 確立을 願하던 願치 않던 間에 앞으로 짊어져야 할 運命的인 것이다. 無計劃的인 狀況에서 이를 推進하기 보다 長期的이고 進取的인 觀點에서 이에 대한 確固한 姿勢로 問題를 解決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韓國內에서 生産 가능한 軍需品에 대한 調査分析, 韓國의 經濟成長을 持續시킬 수 있는 限度內에서 最大로 捻出할 수 있는 軍事費의 適正額, 그리고 漸增하는 北韓의 軍事力에 占해야 되는 問題, 또한 美側이 對韓 軍援을 해야 되는 必要不可欠의 適正線을 年次的으로 計量하고 이에 대한 積極的인 推進만이 韓國의 支援体系를 組織化하고 軍事戰力 強化에 寄與할 것이다.

Handwritten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The text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due to the quality of the scan and the nature of the bleed-through.